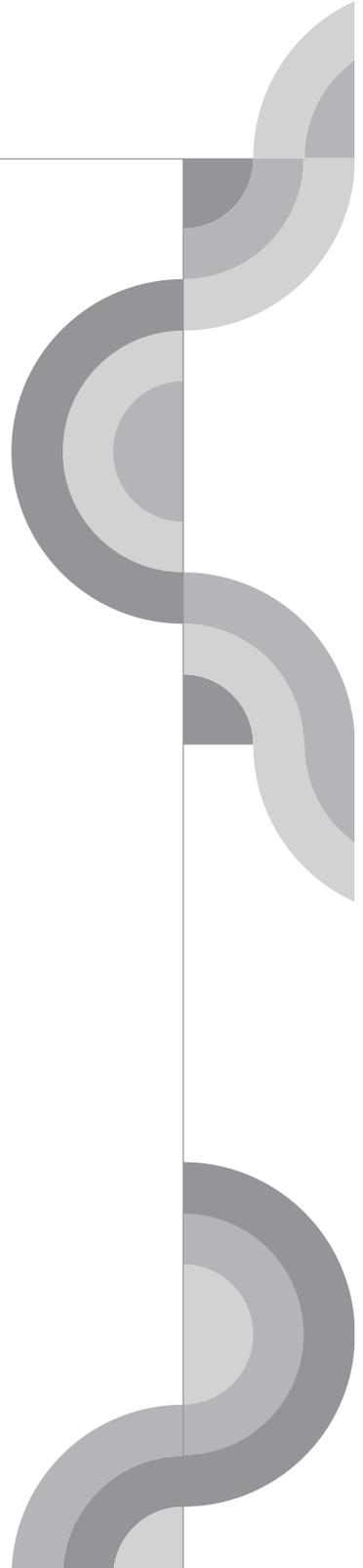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계획 탐색과 지원방안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계획 탐색과 지원방안



연구진

책임 _ 권미애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차장)

공동 _ 정은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민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선임전문위원/서기관)

자문진

(가나다순)

강예선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공선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

김규빈 (지역정책개발연구소 소장)

김민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

김학재 (서울시서대문구50+센터 교육사업팀 팀장)

박경애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선 (재단법인숲과나눔 연구기획실 실장)

박수선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박현식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염지혜 (중원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

오봉욱 (서원대학교 미래대학비전학부 교수)

이무영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숙영 (Lee Hecht Harrison 이사/대표 컨설턴트)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정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예 (전,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임소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PM)

정명환 (포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혜선 (두원공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부현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참여·협조진

(가나다순)

유양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즐거운인생팀 과장)

유요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즐거운인생팀 과장)

태회진 (㈜디파인엔코 부장)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및 내용	7
2. 연구 방법	9
3. 연구 추진 단계	11

제2장 동향 및 사례

제1절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 동향	15
1. 법적 근거 및 조례	15
2. 선행연구 고찰	18
제2절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및 사례	23
1.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23
2.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준비 지원 사업 및 정책 사례	27
제3절 소결	45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제1절 조사개요	51
1. 조사 배경 및 목적	51
2. 조사 설계	51
3. 조사 내용 및 방법	52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55
1. 심층면접조사	55
2. 전문가 의견조사	73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결과 및 논의	81
1. 심층면접 인터뷰 결과에 대한 논의	81
2. 전문가 의견조사에 대한 논의	83
제2절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87
1.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지원 기반 조성	87
2. 5060세대 1인 가구 영역별 지원 방안	94
제3절 연구 합의 및 향후 과제	106
1. 연구의 합의	106
2. 향후 연구과제	107

참고문헌	109
------------	-----

표 목차

〈표 1-1〉 정성조사 방법	10
〈표 2-1〉 전국 성별·연령별 1인 가구 현황(2020)	24
〈표 2-2〉 전국 및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혼인상태	25
〈표 2-3〉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실태	26
〈표 2-4〉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내용	29
〈표 2-5〉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종류	31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5060세대 노후준비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	32
〈표 2-7〉 지자체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내용	33
〈표 2-8〉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	36
〈표 2-9〉 2022년 인천시 1인 가구 정책	37
〈표 2-10〉 2022년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정책	38
〈표 2-11〉 서울시 2022~2026년 1인 가구 안심정책 주요 사업내용	40
〈표 2-12〉 경기도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사업	43
〈표 3-1〉 조사 설계 개요	51
〈표 3-2〉 인터뷰 사전질문지 구성 내용	53
〈표 3-3〉 심층인터뷰 대상자 일반적 특성	53
〈표 3-4〉 의견조사 추진 개요	54
〈표 4-1〉 전국 타 시·도 중·장년 인생이모작 및 생애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87
〈표 4-2〉 전국 타 시·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8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11
[그림 2-1] 전국 가구원수 별 비중 추이(2015~2020)	23
[그림 2-2] 전국 및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분포(2020)	24
[그림 2-3] 전국 및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 이혼 비율	25
[그림 2-4] 전국 및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 사회활동 참여율	26
[그림 2-5] 노후준비서비스 추진체계	28
[그림 2-6]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서비스 내용	29
[그림 2-7] 서울시 1인 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 정책목표	39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인구고령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방안 필요

-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3.8%(평균 14.2%)에 달해 노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부담 역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¹⁾

□ 정부추진 동향

- 「노후준비지원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제1차 노후준비 기본계획(2016),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배경
 - : 한국의 기대여명 83.3세(남성 80.3세, 여성 86.3세)²⁾
 - : 고령화사회(2000년 7.2%) → 고령사회(2018년 14.3%) → 초고령사회(2025년 20.3%)

□ 1인 가구 과반은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61.1% 차지

- 「2020년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²⁾ 50대 이상의 1인 가구 증가 추세
 - 1인 가구의 분포의 특성
 - : 성별 - 여성(53%), 남성(47%)
 - : 연령별 - 70세 이상(26.7%), 60대(19.0%), 50대(15.4%)
 -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과반인 61.1% 차지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020.12.3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5.30.).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 5060세대 1인 가구의 노후계획 모색을 위한 점검 필요

- 생애 주요 전환점의 선상에 있는 5060세대가 맞이하게 될 노년기의 삶이 더 이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착되지 않도록 인생2막에 대한 설계가 절실히 요구됨
-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현재 노인세대가 경험하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환기가 필요함
- 통계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5060세대 이상부터 고령층까지 1인 가구를 형성하는 중요한 대상자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냄. 1인 가구가 지닌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자료에서 예측하는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조성되어야 함

나. 연구 목적

- 5060세대 1인 가구의 노후계획 관련 현황을 탐색하고 욕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 모색
- 고령사회대응센터를 비롯해 노후설계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의 사업 및 교육 설계 시 참고 자료 활용 기대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 내용

-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수행을 위한 범위 및 방법과 추진 단계 제시
- 제2장 동향 및 사례

- 노후준비 및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한 근거법 및 조례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 인천시 및 타 시·도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관련 정책 사례조사
-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 조사 설계 개요 및 분석 결과 제시
 - 결과 제시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제4장 정책제언
 -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 선행연구 조사

- 학술정보를 제공 사이트를 통해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준비’, ‘노후계획’, ‘신중년’ 등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연관된 학위, 학술,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 관련 연구자료 검토
- 정부 및 지자체 각종 행정통계 자료 분석

□ 사례연구

- 심층면접인터뷰 조사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모집기간	• 2022. 7. 1. ~ 7. 17.
조사기간	• 2022. 7.18. ~ 8. 2.
조사대상	• 인천시 거주 5060세대 1인 가구 14명 • 1년 이상 1인 가구로 인천지역 내 거주자 • 50~69세(출생년도 1953~1972년)
표집방법	• 편의표집
표집할당	• 연령, 성별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및 대면조사(※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심층면접인터뷰 사전질문지 구성 내용

구분	세부항목
대인관계(가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 현황 대인관계 확장 의향 원하는 대인관계 유형 관계 확장 시 필요한 도움 지원 기관의 역할 제시
여가 및 취미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현황 관심 분야 및 준비 여부 프로그램 희망시간 및 비용 관련 기관 인지 여부 및 요구사항 프로그램 정보제공 방법
건강 및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현황 돌봄 능력 유무 돌봄 기관 인지 여부 희망하는 건강 지원
재무 및 소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생활비 및 준비 여부 소득활동 여부 및 경험 노후 일자리 형태 교육 이수 및 비용 지불 의향 기관 인지 여부 및 요구사항
사회공헌(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의향 및 분야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인식 여부 요구사항

□ 의견조사

○ 자문회의 및 보고회(중간, 최종) 운영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의견조사

- 전국 및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관련 연구 경험자 및 박사급)
- 조사 대상자 관련 사업 계획 및 운영 기관 관계자(관리자, 실무자)

- 보고회(중간, 최종) 의견 조사

- 연구 추진 기간 내 2회 중 전문가 참여에 의한 의견 수렴

○ 연구 구성 체계 및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 정책 사항 제시

3. 주요 연구결과

가. 심층면접인터뷰 대상자 5060세대 1인 가구의 현황과 욕구분석

□ 네트워크 : 관계(가족, 사회)

○ 가족중심의 네트워크 악화로 고립적인 상황 전개

- 5060세대 1인 가구의 다수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인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소극적인 양상
- 대인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지속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
-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삶이 유지되기를 원함

□ 여가 및 취미생활

-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가·취미생활을 즐겼으나, 다수는 비용 지불에 부담을 지님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한 활동 제약
-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가 커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개인적 문제
-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5060세대 1인 가구의 연령 및 이용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아 이용하는데 어려움 발생
- 기존에 관심 있던 분야 중 적은 비용으로 여가·취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선호
- 국가 및 지자체의 여가·취미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 홍보 강화 필요

□ 건강 및 일상생활

- 건강상의 문제는 노후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가져옴
- 건강 악화로 여가 및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함. 특히 60대는 건강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한 경우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짐
- 건강 악화는 일상생활 전반에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1인 가구는 대다수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지역 기관이 건강 및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 요구
-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건강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경제활동

-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는 소수로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임

- 노후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준비한 경우라도 지병이나 경제 상황 악화로 빈곤이 가속화되는 상황임
-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월 80~150만 원 정도로 판단했으나, 다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임
-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과 업무 난이도, 근무 기간을 확인 등 특성을 살펴야 함
- 구직 등의 정보는 주로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 일자리 지원 기관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되는 일자리 고용서비스 확산이 필요함

□ 사회공헌(자원봉사)

- 직장 및 종교 생활 중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해 본 경우는 소수임
- 자원봉사 욕구가 있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로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으며, 자원봉사 욕구 자체가 크지 않음
- 자원봉사를 원할 경우 어떤 활동이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함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본인 삶에 대한 자기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5점 만점에 평균 2점 정도)

□ 정책적 지원 기관 및 내용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주로 바우처나 주거 방문 서비스가 주를 이룸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대한 인식

- 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주문함
- 5060세대 1인 가구가 제공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제공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홍보 강화가 필요함

나. 전문가 의견조사

□ 5060세대 1인 가구의 정책적 지원 내용 및 방향성

-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지원 대상화의 어려움
- 다각적인 사회관계망 지원
- 생애주기적 접근에 근거하는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 형평성 및 지역적 특성 검토
- 심리지원 강화 및 사회적 관계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지원 분야

□ 5060세대 1인 가구의 정책적 지원 시 고려사항

- 인천시 전달체계 내 부서간 기존 정책검토
- 정책지원 대상의 보편성과 통합적 사례관리
- 자립원칙의 관점
-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각 특성의 성향 고려

다.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지원 기반 조성

-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책 대상별 실태조사
- 행정조직 전달체계 구축
- 정책 실행기관 설치 및 운영 강화

□ 5060세대 1인 가구 영역별 지원 방안

- 네트워크 : 관계(가족, 사회)
 - 유사가족(공동체)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건강 및 일상생활
 - 정신건강상담 강화
 - 사회적돌봄시스템 강화
 -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 여가 및 취미생활
 - 참여자 및 제공자간 수요조사
 - 교육제공 관점의 방향성 분리 제공
 - 5060세대 공간 조성
- 재무 및 소득활동
 - 5060세대 1인 가구 특화 노후준비컨설팅 제공
 - 대상자 특성 중심의 경력개발,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일자리 등 일-활동 연계 직업훈련 설계
- 사회공헌(자원봉사)
 -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계획 수립
 - 제2의 직업으로 전환 가능한 활동 개발
 - 적극적 홍보방안 수립

1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고령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방안 필요

- 한국은 OECD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3.8%(평균 14.2%)에 달해 노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부담 역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보건복지부, 2020.12.30.)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인구 감소 대비 수급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보장지출 부담 가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함
-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는 다양한 영역에 파급 효과를 미침. 개인마다 직·간접적인 경험치는 상이하겠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머지않아 다가올 노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노년기를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은 현재 5060세대의 다양한 삶의 화두 중 절실히 체감되는 고민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어려움
 - 두 가지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의 연령 스펙트럼을 넓게 범위 지을 수 있지만 노후준비의 시급성과 시기를 고려할 때 두 번째 질문은 연령의 제한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지을 수도 있음. 곧, 노년기 진입에 임박한 연령대나, 이미 노인으로 접어든 당사자의 경우 끊임없는 고민과 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수 있음
 - 그렇다고 연령의 한계를 정하고 노년기 삶에 대한 고민을 특정 연령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의 삶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인초반의 생애주기부터 시작될 필요는 반드시 있음
- 누구나 삶에 대한 고뇌와 성찰을 다양한 깊이로 조망해 가며 살지만 현실의 상황이 충분한 준비와 깊이 있는 고민을 이끌어 내기에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또 적응하기에 급급한 시간에 이끌려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임

- 전력을 다해 달려온 인생의 속도감에서 이제 한 단계 속도를 낮추고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과제를 개인의 몫으로 한정 짓기보다 이제는 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선결 과제의 하나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이러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까지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기대여명이 늘어 길어지는 노년기, 인구 고령화로 경제활동 구조에 대한 변화, 건강·의료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 등 개인과 정부가 겪게 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조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또 더 나은 삶의 질이 구현되는 사회일 때, 위기로 인식하는 인구 고령화 시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일정 부분 탄력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부추진 동향

-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2015년 법을 제정하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이에, 2016년 제1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이 마련되었고, 이어 2021년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을 발표함
- 제2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기대여명이 83.3세(남성 80.3세, 여성 86.3세)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함(보건복지부, 2020.12.30.)
 - 국내 노인인구 비율의 변화와 예측
 - 고령화사회(2000년 7.2%) → 고령사회(2018년 14.3%) → 초고령사회(2025년 20.3%)
- 제2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보편화하며, 노후준비 지원 정책 강화 및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책 정보 연계 지원 확대로 기존 관련 기본계획 대책과 연동하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체계를 마련함

□ 1인 가구 과반은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61.1% 차지

- 「2020년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 및 2인 이하의 가구 비율 증가가 확연히 나타남(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30.)
 - 조사 결과 1인 가구의 특성

- 성별 - 여성(53%), 남성(47%), 연령별 - 70세 이상(26.7%), 60대(19.0%), 50대(15.4%)
-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과반인 61.1% 차지

□ 5060세대 1인 가구의 노후계획 모색을 위한 점검 필요

- 생애 주요 전환점의 선상에 있는 5060세대가 맞이하게 될 노년기의 삶이 더 이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착되지 않도록 인생2막에 대한 설계가 절실히 요구됨
-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현재 노인세대가 경험하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환기가 필요함
- 통계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5060세대 이상부터 고령층까지 1인 가구를 형성하는 중요한 대상자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냄. 1인 가구가 지닌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자료에서 예측하는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조성되어야 함
- 그러므로 본 연구는 5060세대 1인 가구가 처한 현시점의 상황과 단계적인 노후계획을 통한 준비를 위해 어떠한 욕구와 실천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인천시에서 출범한 고령사회대응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구체화 되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본 연구를 계획함

2. 연구 목적

- 5060세대 1인 가구의 노후계획 관련 사항을 탐색하고 욕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 모색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비롯해 노후설계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 기관의 사업 및 교육 설계 시 참고 자료 활용 기대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에 주목하고,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을 다투듯 지자체마다 1인 가구 실태조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2022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조례 역시 마련된 상황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먼저 추진한 타 시·도로부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사례로 참고하고 있음
- 이 같은 사회적 배경에 인천은 후발주자로 뛰어들 양상이지만, 세심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1인 가구 특성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개발되어야 하는 목적을 지님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인 통계적 근거에 기반 한 연구방법론이 아닌 연구 대상자의 삶의 현주소를 탐색하고, 내재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정성조사연구 방법론으로 설계함
 - 질적으로 연구하는 정성조사는 연구 대상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현상을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 사례연구는 개인, 집단, 조직, 제도, 과정 등과 같이 구체적인 현상이 주요한 사례가 되기도 하고, 조사 과정상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물리적 제한점을 가지나 심층적인 질문과 응답 반응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사안에 대한 복잡성과 총체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됨
 - 다양한 주제, 사건, 인식의 정도, 실제 체감하는 사안에 대한 대상자의 니즈 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왜’ 요구되는지 정량조사 결과에서 얻기 힘든 주관적인 경험과 심리적 요인 간의 상호관계 등 다차원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성조사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5060세대 1인 가구는 단 한가지의 특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구조의 연구대상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동시다발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 대상으로 판단함
- 앞으로 실현 가능하고 5060세대 1인 가구 대상자의 욕구에 근접하는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업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계획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미를 지님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정성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기준 연도 : 2022년
- 자료기준 연도 : 주로 최근 5년 이내(2018~2022년) 발간물 및 자료 활용
 - 정부 및 지자체 각종 행정통계, 학위 및 학술논문, 단행본, 관련 사이트 등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인천시정 및 정책반영 단위 10개 군·구 전역
 - 조사대상자 : 인천시 군·구 거주자(5060세대/ 1953~1972년 출생), 1년 이상 1인 가구 지속) 한정

□ 내용적 범위

-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 인천시 및 타 시도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사례조사
- 인천시 거주 5060세대 1인 가구의 노후계획 현황 및 욕구 탐색
-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정책 방안 제언

□ 연구 용어 개념의 범위

- 노후준비와 노후준비 서비스
 -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함

-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에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의미함
- 노후계획
 - 노년기에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에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미리 헤아려 구상하는 것을 의미함
- 5060세대
 - 연령 50세부터 69세까지 해당하며, 출생년도는 1953년부터 1972년 사이에 출생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함
- 1인 가구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2항2에 따르면 ‘1인 가구’란 혼자서 취침, 취사 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위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포함하며, 동일 공간 내 동반자 없이 혼자서 취침, 식사 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살펴봄

3) 연구 내용

-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수행을 위한 범위 및 방법과 추진 단계
- 제2장 선행연구 동향 및 사례
 -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 인천시 및 타 시도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관련 정책 사례조사
-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 조사 설계 개요 및 분석 결과 제시
 - 결과 제시에 따른 시사점
- 제4장 정책제언
 -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5060세대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안

2.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조사

- 학술정보를 제공 사이트를 통해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준비’, ‘노후계획’, ‘신중년’ 등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연관된 학위, 학술,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 관련 연구자료 검토
- 정부 및 지자체 각종 행정통계 자료 분석

2) 사례연구

- 정성조사
 - 조사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이후 기본적인 대상자 특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심층면접인터뷰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심층면접인터뷰 과정을 진행함(표 1-1)
 - 심층면접인터뷰 조사 대상자는 1953년부터 1972년에 출생한 5060세대 1인 가구로 인천 지역에 1인 가구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중심으로 함
 - 조사대상자는 50대 60대 각각 지역, 성별과 대상자 수를 최대한 맞춰 선정하여 노후준비 및 계획과 관련한 현재의 준비현황과 향후 필요한 욕구에 대해 파악함
 - 질문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실태조사 지표 영역(대인관계, 건강, 여가활동, 재무)과 생애설계 영역(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 관계, 가족, 여가, 건강) 지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계(대인, 가족, 사회), 건강, 여가, 재무, 일, 사회공헌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함
 - 기타 일반적인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한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기기입식 작성이 가능하도록 마련함. 연령, 성별, 최종학력, 혼인상태,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 소득활동, 건강상태 등에 해당함

〈표 1-1〉 정성조사 방법

구분	세부내용
조사대상 모집기간	• 2022. 7. 1. ~ 7. 17.
조사기간	• 2022. 7. 18. ~ 8. 2.
조사대상	• 인천시 거주 5060세대 1인 가구 14명 • 1년 이상 1인 가구로 인천지역 내 거주자 • 50~69세(출생년도 1953~1972년)
표집방법	• 편의표집
표집할당	• 연령, 성별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및 대면조사(※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3)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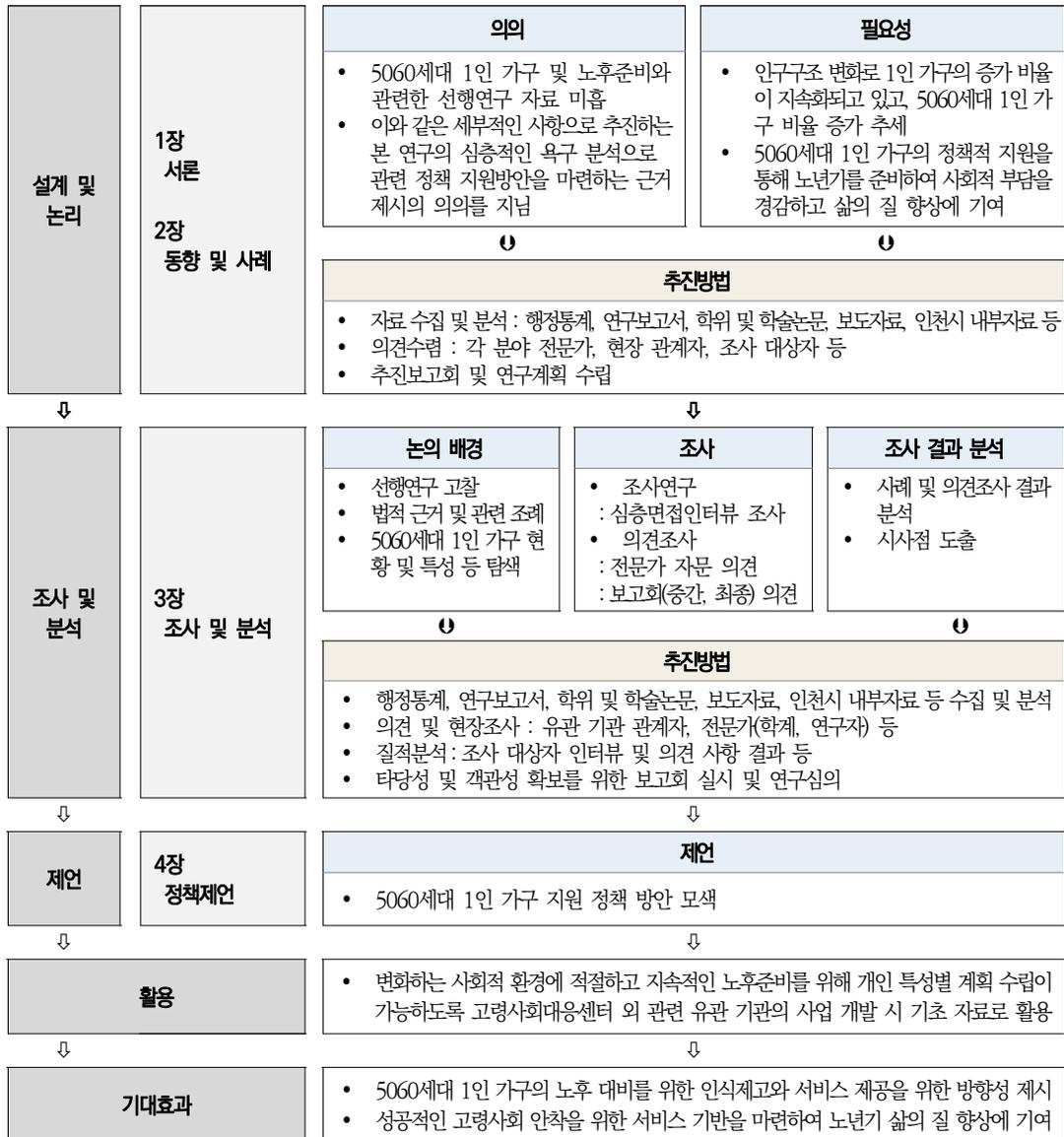
○ 자문회의 및 보고회(중간, 최종) 운영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의견조사
 - 전국 및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관련 연구 경험자 및 박사급)
 - 조사 대상자 관련 사업 계획 및 운영 기관 관계자(관리자, 실무자)
- 보고회(중간, 최종) 의견조사
 - 연구 추진 기간 내 2회 중 전문가 참여에 의한 의견 수렴

3. 연구 추진 단계

-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추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설계 및 논리와 조사 및 분석, 정책제언으로 구분함(그림 1-1)
- 각 단계별 연구 보고서 구성 내용과 추진 방법에 따른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 나감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2

동향 및 사례

제1절 법적근거 및 선행연구 동향

제2절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및 사례

제3절 소결

제2장 동향 및 사례

제1절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 동향

1. 법적 근거 및 조례

1) 법적 근거

-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계획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노후준비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

-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계획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서 노후준비 및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와 노후준비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해 둠
 - 제2조(정의)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정의함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제5조 2항에서는 노후준비지원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시함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노후준비지원 사업을 제시함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 2와 제10조에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센터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 조성,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즉,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의 운영을 담당함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은 「노후준비지원법」과 동일한 목적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2조의2에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과 동일한 목적으로 「노후준비지원법 시행규칙」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과정(제6조1항 관련)을 명시하고 있음
- [별표]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과정(제6조1항 관련) : 교육과목구성(노후준비총론,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 설계, 경력관리 설계, 주거설계) 및 이수 방법

□ 건강가정기본법

-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제 15조 2항 10호에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함

- 제20조(가족실태조사) 2항에는 가족실태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함

2) 인천시 1인 가구 및 중장년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 인천시는 2022년 2월 24일자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5조(기본계획) 1항에 따라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5조2항에 의해 기본계획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제5조(기본계획)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는 사회적 가족도시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주거복지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4. 공유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7. 범죄·폭력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 8.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 9. 1인 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 10. 그 밖에 시장이 1인 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 인천시 연수구는 2019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4조(지원사업) 장년층의 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교육·상담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제7조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2.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표 영역과 생애설계 영역을 중심으로 대인관계·가족관계·사회관계를 포함하는 관계, 건강 및 일상생활, 여가 및 취미, 재무, 일(소득활동), 사회공헌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음

1) 관계

- 관계는 대인관계 상태 및 관계개선을 말하며, 가족/친구/이웃/직장동료 등과의 친밀도, 참여하는 모임 수, 전반적인 대인관계 평가 등을 포함함(국민연금공단, 2021)
- 중년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작으며, 단체활동의 참여정도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성혜영, 2021)
- 자녀 또는 자녀배우자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5060세대 1인 가구의 우울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연락이나 만남이라는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류의 강도가 더

높은 만남을 통해 자녀나 자녀배우자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혼자 생활하는 중·고령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

- 1인 가구 중년 비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현화(2020)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경험에 있어서 상호작용 대상의 모호함과 결핍, 부재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상호작용의 결핍과 부재는 삶에 대한 불안, 무미건조함 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의 강한 집단주의 문화와 전통적 결혼 및 가족 가치관에서 벗어난 이들의 조건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 힘의 불균형을 경험하며, 은폐와 침묵, 자기 비난적 소외와 고립과 같은 부정적 관계 이미지와 핵심적 관계 모순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1인 가구 중년에게는 느슨하지만 연결된 관계망의 구축, 가족관계에 대한 대안적 관계에 대한 고려, 현실에는 부재하나 판타지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애도와 상실감 극복,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의 증진, 자신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유지, 은폐와 침묵이나 자기 비난적 소외에서 벗어나 진솔한 목소리 내기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가족관계와 사회적 친분 관계의 만족이 1인 가구 중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1인 가구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살더라도 심리적으로 가족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도록 이웃들과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관계 맺기가 필요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임유진·박미현, 2018)

2) 건강 및 일상생활

- 건강은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을 말하며,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관리수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스트레스 정도, 구강관리 수준, 수면시간, 운동 실천 수준, 흡연/음주 횟수, 건강검진 참여도 등을 포함함(국민연금공단, 2021)
-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결식 및 혼식 횟수가 높으며, 특히 중년층은 1인 가구일 경우 모든 끼니의 결식 위험이 높아져 영양상태 저하 및 건강관리 측면에서 더 취약함(홍승화·김지명, 2021)
- 중년 1인 가구와 다인가구 중년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흡연과 음주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유의하게 중년 1인 가구의 행태가 다인가구의 중년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이하나·조영태, 2019)

- 1인 가구 중년층은 다른 연령층의 1인 가구에 비해 우울 의심률과 자살 생각률이 월등히 높고(강은나·이민홍, 2016), 일반인의 우울 평균점수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중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줌(임유진·박미현, 2018)
-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년 1인 저소득층 가구의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위급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거나 지원해줄 체계가 없으므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전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함(강보민, 2020)
- 즉, 중년 1인 가구의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음(김순정, 2019)

3) 여가 및 취미

- 여가활동은 여가 개선과 여가준비를 말하며, 취미·여가활동 참여빈도와 지속기간, 만족도, 타인 대비 현재 본인의 취미활동 평가, 노후 취미·여가활동 준비 경험 및 인식여부 등이 포함됨(국민연금공단, 2021)
- 5060세대가 최근 1개월간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은 'TV 시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등산', '산책', '이웃/친구와 대화하기·전화 통화' 등으로 나타남.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4.1%에 불과함. 특히 읍면 지역, 여성, 고연령, 1인 가구, 저학력, 저소득의 5060세대는 'TV시청'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거리, 물리적 환경, 비용 등) 등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가 제한되었을 수 있음. 이에 비해 노후에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국내외 여행, 소풍, 나들이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양한 여가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요구됨(임정미, 2020)
- 전국의 5060세대 1인 가구 168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을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유형은 일상적 홀로 운동형(26.8%), 관계적 운동 오락형(28.0%), 일상적 취미활동형(23.3%), 여가소홀형(21.4%)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남. 여가활동유형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여가소홀형에 비해 일상적 취미활동형의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남. 따라서 5060세대 1인 가구의 중·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여가서비스 제공시간의 다양화와 비용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강은나 외, 2017)

4) 재무

- 재무는 재무여건과 노후생활비를 말하며, 예상 은퇴연령, 노후 예상 생활비 수준, 공적/퇴직/개인연금 수령(예상)금액, 금융/부동산 자산 보유금액 등을 의미함(국민연금공단, 2021)
- 중년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소득 수준이 낮았고, 주택소유 비율도 낮았으며, 이들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소득수준이나 소득만족도 및 소비생활만족도도 다인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성혜영, 2021)
- 중·장년, 노년으로 갈수록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상태가 더 열악하고 고용 상황도 불안정함(이한나, 2020)
- 5060세대를 포함한 중·고령자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는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윤강인·강인선, 2016; 최성현, 2020; 홍성표·임한려, 2022)
- 경제적 조건이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 참여, 건강 등의 다양한 요인이 이들의 삶의 만족에 관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소득은 삶의 만족도 초기 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게 나타남. 즉, 소득의 효과는 초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홍성표·임한려, 2022)
- 사회경제적 박탈은 1인 가구 중년의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적연금 미가입 또는 미납경험의 박탈과 직업·경제 박탈이 높게 나타나 1인 가구 중년의 절반이 노후소득보장의 증추적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임유진·박미현, 2018)

5) 일(소득활동)

- 중장년의 일의 의미는 외재적 가치 특히 직업의 안정성, 소득 및 보상 등 금전적·경제적인 요인에서 이타적 보상과 공동체적인 삶에까지 변화하고 있음. 즉, 일은 더 이상 금전적

보상만이 아닌 자기개발, 자기 충족, 이타성, 공동체적 삶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중장년 시기는 일의 의미가 경제적·재정적 요인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사회공헌,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남. 지속적인 경제활동(일)을 해 왔던 중장년에게 퇴직·은퇴로 인한 상실감, 우울감 고립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효과가 있으므로 자신의 경제상태에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서적 요인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계의 장을 마련하고, 일의 유형별(경력연장의 재취업, 창직, 창업, 귀농, 귀촌, 귀어 등) 인생 후반기 설계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이영광, 2021)
- 중년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취업상태와 임금생활자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임금생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다인가구에 비해 낮고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근로 상황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장년 이상으로 갈수록 1인 가구의 세대주는 비정규직에 종사할 확률이 증가함(성혜영, 2021)

6) 사회공헌

- 사회공헌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으로, 5060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참여하는 비영리적 활동을 의미함(이서연, 2019)
- 5060세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63.1%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또한 54.2%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함(임정미, 2020)
- 5060세대의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에 통합되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미와 흥미를 갖고 다양한 사회참여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이서연, 2019)

제2절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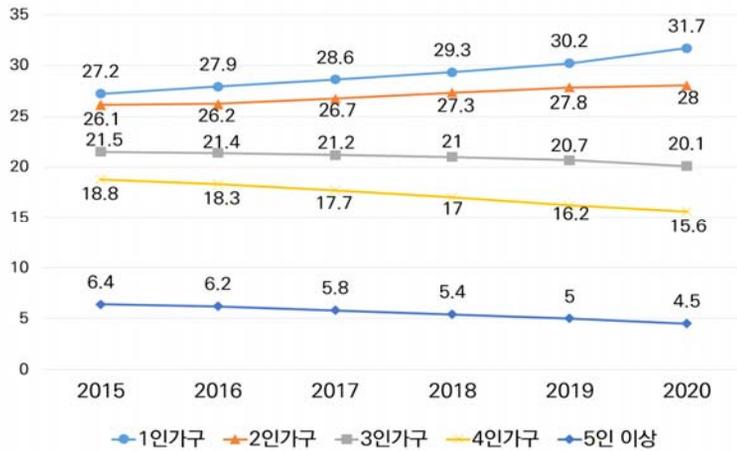
1.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1) 전국 5060세대 1인 가구 추이 및 현황

- 전국의 가구원수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율은 늘어남

[그림 2-1] 전국 가구원수 별 비중 추이(2015-2020)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 총조사」, 정혜은(2022). 인천시 1인 가구 특성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5060세대는 50~59세(23.0%), 60~69세(18.1%)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5060세대는 50~59세(15.6%), 60~69세(15.6%)로 나타나 1인 가구 중 5060세대가 31.1%를 차지하고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전체 1인 가구 중 남성이 49.7%, 여성이 50.3%로 나타났다. 남성 1인 가구 중 5060세대는 31.1%, 여성 1인 가구 중 5060세대는 30.9%로 나타남

〈표 2-1〉 전국 성별 연령별 1인 가구 현황(2020)

(단위: 천 가구, %)

연령	전체가구	1인 가구						
		전체		남자	여자			
합계	20,927(100.0)	6,643(100.0)		3,304(49.7)	3,339(50.3)			
20세 미만	80(0.4)	76(1.1)		36(1.1)	40(1.2)			
20-29세	1,694(8.1)	1,267(19.1)		650(19.7)	617(18.5)			
30-39세	3,123(14.9)	1,116(16.8)		715(21.6)	401(12.0)			
40-49세	4,260(20.4)	904(13.6)		572(17.3)	332(9.9)			
50-59세	4,810(23.0)	41.1	1,039(15.6)	31.2	595(17.5)	31.1	445(13.3)	30.9
60-69세	3,787(18.1)							
70세 이상	3,174(15.2)	1,202(18.1)		286(8.7)	917(27.5)			

자료: 통계청(2020). 「인구 총조사」.

2)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 2020년 기준 전국 분포는 [그림 2-2]와 같이 20~29세 1인 가구가 1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70세 이상(18.1%)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시는 50~59세 1인 가구가 1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60~69세(16.8%)였음

[그림 2-2] 전국 및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분포(2020)



자료: 통계청(2020). 「인구 총조사」, 정혜은(2022). 인천시 1인 가구 특성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 인천광역시 5060세대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표 2-2>와 같이 50~59세는 43.1%가 이혼, 30.3%가 미혼으로 나타났고, 60~69세는 41.7%가 이혼, 29.0%가 사별로 나타나 [그림 2-3]과 같이 전국 분포에 비해 5060세대 1인 가구의 이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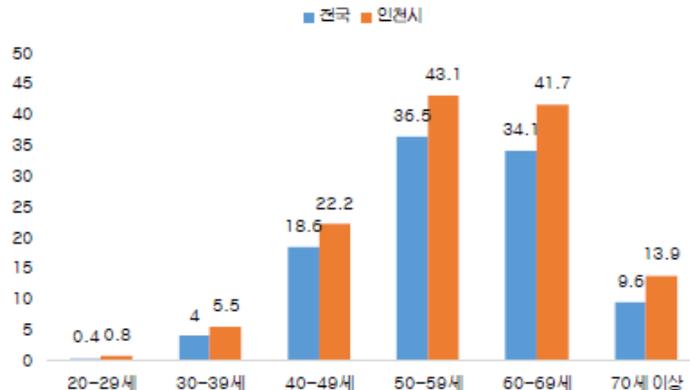
<표 2-2> 전국 및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의 혼인상태

구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국	전체	50.3	13.2	20.5	16.1
	20세 미만	100.0	0.0	0.0	0.0
	20~29세	98.7	0.9	0.0	0.4
	30~39세	88.4	7.4	0.1	4.0
	40~49세	62.9	17.6	0.9	18.6
	50~59세	29.2	26.2	8.1	36.5
	60~69세	11.5	22.5	31.9	34.1
	70세 이상	3.0	9.5	77.9	9.6
인천광역시	전체	48.8	11.4	18.3	21.5
	20세 미만	100.0	0.0	0.0	0.0
	20~29세	98.3	0.9	0.0	0.8
	30~39세	87.9	6.5	0.1	5.5
	40~49세	63.7	13.3	0.8	22.2
	50~59세	30.3	19.6	7.0	43.1
	60~69세	11.3	18.1	29.0	41.7
	70세 이상	3.4	9.5	73.1	13.9

자료: 통계청(2020). 「인구 총조사」.

[그림 2-3] 전국 및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 이혼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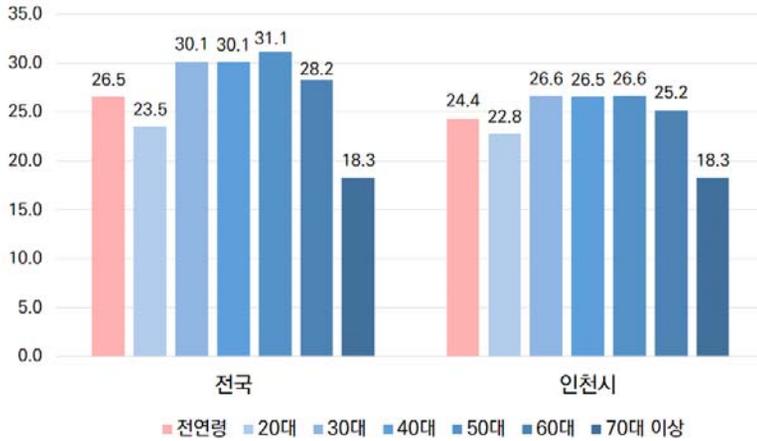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인구 총조사」, 정혜은(2022). 인천시 1인 가구 특성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 인천광역시 5060세대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그림 2-4]와 같이 50~59세는 26.6%, 60~69세는 25.2%로 나타나 전국 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2-4] 전국 및 인천시 연령대별 1인 가구 사회활동 참여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2020). 「인구 총조사」, 정혜은(2022). 인천시 1인 가구 특성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 인천광역시 5060세대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상태는 <표 2-3>과 같이 50~59세는 69.2%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60~69세는 68.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하는 사회활동으로는 50~59세는 문화분야, 친목단체 순으로 나타났고, 60~69세는 친목단체, 문화분야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3> 인천시 연령별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실태

(단위 : %)

구분	사회단체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정치 분야	종교 분야	지역 단체	친목 단체	교육 단체	없음
20대	3.0	1.3	8.0	0.6	5.9	1.1	7.5	0.7	71.9
30대	3.1	1.5	9.7	0.2	4.3	0.6	5.6	0.4	74.6
40대	3.5	1.5	11.8	0.9	4.1	1.1	6.2	1.1	69.7
50대	2.9	1.8	10.1	1.2	4.3	1.4	7.5	1.5	69.2
60대	3.6	1.5	7.9	0.8	5.0	1.2	10.5	1.0	68.5
70대 이상	2.9	1.0	5.8	0.2	8.0	1.2	9.9	0.3	70.6

자료 : 통계청(2020). 「인구 총조사」.

2.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준비 지원 사업 및 정책 사례

1) 5060세대 노후준비 지원 사업 및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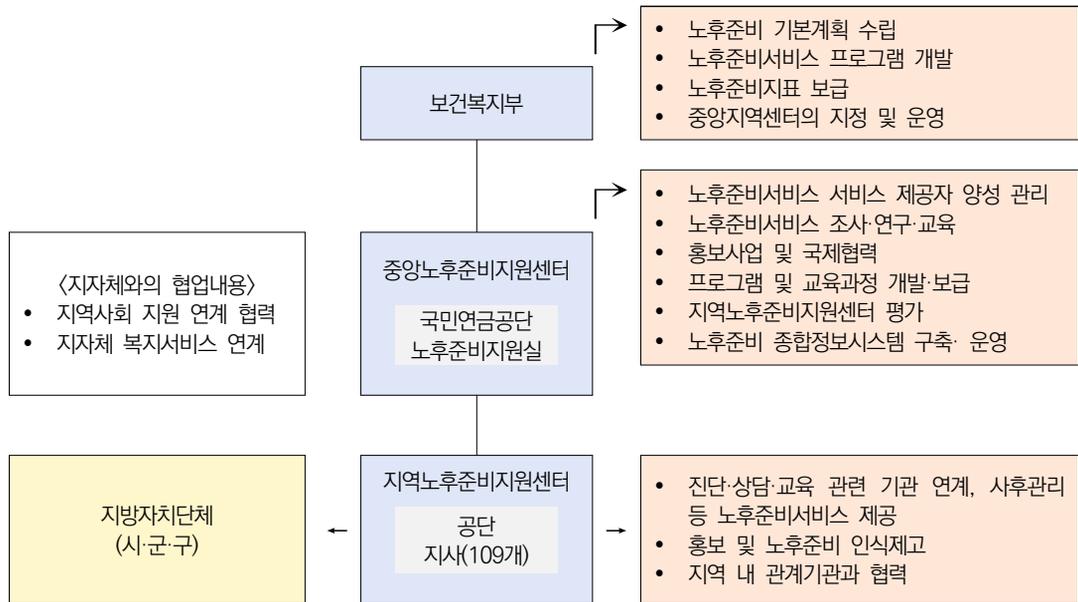
(1) 부처별 지원 사업 및 정책

- 일자리위원회는 중장년 일자리 TF 구축 및 활동(2019. 1~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2019. 4. 10), 하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2020. 3. 9),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2020. 5. 15) 등을 발표하여 부처합동으로 신중년 인력활용 방안을 제시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2019)을 통해 신중년의 행복한 노후준비 여건을 조성하고 이후 4차 계획(2021~2025) 실행 시기에는 신중년 새 출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생 3모작 지원을 위해 재직·전직·퇴직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촉진장려금,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령자인재은행, 산업현장 전문가 활용,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강화, 학습데이터 수집·가공 프로젝트, 신중년 고용서비스 포털 구축 추진, 고령자 고용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년층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은퇴로 인하여 생애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년(50~64세) 세대의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중년 생애단계발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산을 지원함
-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운영, 초기창업패키지인 ‘중장년인재서포터즈사업’,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 지원(2020),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사업(2020) 등을 통해 중장년 인력을 현장에 활용하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년 뿌리산업 취업패키지(2018)’를 추진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공모(2019)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함.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저소득층 및 장년층을 대상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함. 교육

부는 고속런 은퇴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훈련기관 등의 채용 시장려금 지원을 연계함

-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신중년세대에 특화시켜 신중년특화서비스를 제공함(송민혜 외, 2020)

[그림 2-5] 노후준비서비스 추진체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실 제출자료(2020.7).
원시연(2020).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745호.

-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5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가 노후준비위원회를 두며(제8조),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함(제9조)
- 노후준비서비스 추진체계는 [그림2-5]와 같으며, 국민연금공단 소속 중앙노후준비센터와 공단지사 109개소가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활동

서비스	영역(세부영역)		서비스내용
	여가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내용 ① 노후 취미·여가활동 탐색 ② 현재 취미·여가활동 탐색 ③ 자원봉사 ④ 자기개발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내용 ① 가족과의 친밀도 높이기 ② 가족 외 타인과 친밀도 높이기 ③ 참석하는 모임 늘리기
전문 상담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활동 지속 노력 수준 • 노후 필요 생활비 • 노후대비 저축률 • 노후 월 연금소득 • 금융자산 활용 • 부동산 적정비중 관리 	재무영역의 노후준비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중단된 상황을 대비하고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의 생애주기 별 재분배를 실천하는 과정 • 관계기관 : 주택금융공사, 농어촌공사 등 10곳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개선하기 • 정기적인 건강관리 • 균형 잡힌 식습관 • 흡연 및 음주 줄이기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전략 제시 및 건강정보 제공 • 관계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3곳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여가 개선하기 • 노후의 여가 준비하기 	현재 자신의 여가 상태를 확인하고 노년기 여가활동을 위해 현재의 취미생활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여가활동에 필요한 실천과제 및 정보제공 • 관계기관 : 한국관광공사 등 6곳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관계 • 자녀와 관계 • 형제자매 관계 • 친구 및 이웃 관계 	참석하는 모임, 친밀도 등 전반적인 대인관계 평가를 통해 다양하고 친밀도 높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실천과제 및 정보제공 • 관계기관 :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심층 상담	종합재무설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과 지출 간의 불일치 해소와 장수 위험에 대비한 연금 자산 확보 ② 현명한 저축방법, 투자의 기본원칙, 상품에 치우치지 않은 보험·펀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 안내 ③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

자료 : 국민연금공단(2021), 노후준비상담프로그램.

- 지역상담센터는 상담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표 2-5>의 연계기관 20개소와 지자체연계서비스 18종을 연계하고 있음

<표 2-5>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종류

구분(기관)		연계기관	제공서비스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20개소)	재무 (10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제도
		서민금융진흥원	사민금융지원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 서비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업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건강 (3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복지
	여가 (6개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종합사회복지관	취미·문화
		(재)아름다운 가게	자원봉사
		한국관광공사	여행 지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계(1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관계 상담
지자체 연계 서비스 (18종)	재무(7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희망키움통장, 노인일자리,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	
	건강(8종)	치매관리,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일반 건강검진, 노인 독감 예방접종, 노인 실명 예방, 정신건강 상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여가(2종)	취미·문화 프로그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대인관계(1종)	노인돌봄서비스	

자료 : 국민연금공단(2021), 노후준비상담프로그램.

(2) 지자체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및 정책³⁾

- 지방자치단체들의 50+관련 지원 조례들은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와 생애재설계지원 조례가 주요한 조례이며, 이외에 중장년(신중년) 지원조례, 일자리 지원조례 등이 50+세대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음
-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서 2015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인생이모작, 생애재설계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50+세대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2015년 서울시, 동작구, 부천시, 충남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조례제정이 확대되면서 2022년 7월, 8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5060세대 노후준비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

연도	구분	계
20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천시, 충남	4
2016	부산광역시, 안성시, 용인시, 아산시	4
2017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광주광역시, 광주시 동구, 인제군, 전북, 여주시, 경북, 제주	11
2018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대구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순천시	9
2019	강동구, 강서구, 동대문구, 부산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남양주시, 강원, 완주군, 전주시,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해남군, 양산시, 인천 연수구	21
2020	서초구, 평택시, 경상남도, 부여군, 서울 중구, 광주 서구, 진주시, 창원시, 양천구, 군산시, 전라북도, 고양시	12
2021	연제구, 사천시, 성동구, 김포시, 성주군, 속초시, 남해군, 은평구, 의왕시, 군포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김해시, 부산영도구, 남동구, 대전 서구	16
2022	목포시, 김제시, 전라남도, 서울 강북구	4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3) 송민혜·경정아·박선영(2020).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 분석. 재정리.

- 지자체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내용은 <표 2-7>과 같이 교육상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의 사업으로 대부분의 조례에서 노후준비 50+세대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 관련 연구사업을 포함 시키거나 노후준비, 재무설계, 가족생활, 인력개발, 인적자원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기도 함

<표 2-7> 지자체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내용

광역시	기초	조례명	사업내용									
			교육 상담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노후준비 재무설계	사회참여 사회공헌	건강 증진	여가 문화	연구	인생 재설계	기타	
서울		인생이모작	○	○	-	○	○	○	○	-	-	-
	강동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강서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광진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구로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금천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노원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도봉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동대문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동작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마포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서대문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서초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성북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부산		생애재설계	○	○	○	○	○	○	○	○	○	-
	중구	중장년지원	○	○	-	○	○	○	△	○	-	△
대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인천	연수구	인생이모작	○	-	-	○	○	○	-	-	-	-
광주		생애재설계	○	○	-	○	○	○	○	○	○	-
	동구	생애재설계	○	○	-	○	○	○	○	-	○	-
대전		중장년지원	○	○	-	-	○	○	○	○	△	-
	대덕구	생애재설계	○	○	-	○	○	○	○	-	○	-
	유성구	생애재설계	○	○	-	○	○	○	○	-	○	-
경기		중장년지원	○	○	-	○	○	○	○	-	-	△
	광명시	인생이모작	○	○	-	○	○	○	○	-	-	-
	부천시	인생이모작	○	○	-	○	-	○	-	-	-	-
	성남시	인생이모작	○	○	-	○	○	○	○	-	-	-
	수원시	인생이모작	○	○	-	○	○	○	○	-	-	-
	안양시	인생이모작	○	○	-	○	○	○	○	-	○	-
	평택시	인생이모작	○	○	-	○	○	○	○	-	○	-
	남양주시	생애재설계	○	○	○	○	○	○	-	-	○	-
	안성시	생애재설계	○	○	-	○	○	○	○	-	○	-
	용인시	생애재설계	○	○	-	○	○	○	○	-	○	-

광역시	기초	조례명	사업내용								
			교육 상담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노후준비 재무설계	사회참여 사회공헌	건강 증진	여가 문화	연구	인생 재설계	기타
강원		생애재설계	○	○	○	○	○	○	-	○	-
	인제군	생애재설계	○	○	-	○	○	○	-	-	-
충남		인생이모작	○	○	-	○	○	○	-	○	-
	아산시	인생이모작	○	○	-	○	-	○	-	-	-
전북		생애재설계	○	○	○	○	○	○	-	○	-
	완주군	인생이모작	○	○	-	○	○	○	○	-	-
	전주시	인생이모작	○	○	-	○	○	△	○	-	-
전남		인생이모작	○	○	-	○	○	○	-	-	-
	광양시	인생이모작	○	○	-	○	○	○	-	-	-
	나주시	인생이모작	○	○	-	○	○	○	-	-	-
	순천시	인생이모작	○	○	○	○	○	○	○	-	-
	여주시	인생이모작	○	△	-	○	-	-	-	-	-
	담양군	중장년지원	○	○	-	○	○	○	○	-	△
	경북	중장년지원	○	○	-	○	○	○	-	-	△
경남	해남군	중장년지원	○	○	-	○	○	○	-	-	△
		인생이모작	○	○	○	○	○	○	-	-	-
제주	양산시	신중년지원	○	○	-	○	○	○	-	-	-
		생애재설계	○	○	○	○	○	○	○	○	-
	제주	생애재설계	○	○	○	○	○	○	○	○	-

자료 : 송민혜, 경정아, 박선영(2020).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 분석.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인천시

- 인천시는 5060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구직자별 맞춤형 재취업 컨설팅을 통해 지게차 운전자격 취득 지원 등 신중년 적합직무 인력을 양성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의 정책과제 제시함
 - 노후 소득보장 강화 정책은 예비노인세대 대상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의 활성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함
 - 노후준비는 연령 및 분야별 생애설계 교육 확산, 만 50세 이상 예비노인세대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노년기 교육 전문인력 발굴·양성에 관련된 사업을 제시함.
 - 사회활동 참여 증진은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 등 노인적합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서울시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에 지자체 최초로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였고, 2022년 기준으로 본부 1개소, 캠퍼스 6개소, 센터 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각 캠퍼스 공통적으로 각 기관별로 산재한 일자리·복지·교육·상담 등의 중장년정책을 통합해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사업과 연계되어 3개 과정 학기제로 운영이 됨. 생애전환과정, 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모색하는 일·활동 탐색과정, 풍요로운 삶을 위한 참여와 나눔과 소통이 있는 생활·문화·기술과정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 50+세대의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플러스, 자원봉사 및 프로보노(라틴어,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 활동 등 함께하는 삶을 실현하는 50+사회공헌단 등 활동지원과 더불어 창업·창직 지원, 50+인턴십, 서울시 보람일자리, 앙코르커리어센터 운영까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함

□ 경기도

- 경기도는 중장년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시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을 제안함
-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은퇴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하고,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신중년 전문퇴직자의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예비)창업가에게 멘토링(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함
- 4060재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생계형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수요 특성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상담·알선을 통해 제조업 직무 체험과 재취업을 지원함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중년(만5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부가 심사·선정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2019년에 경기도 소상공인 '금융주치의'사업 외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등 52개의 사업에 지원함

2)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사업 및 정책 사례

- 지방자치단체들의 1인 가구 지원 조례들은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의 조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1인 가구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은 <표 2-8>과 같이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현재 112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8>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

연도	구분	계
2016	서울시, 부산광역시	2
2017	부산 동래구, 양천구,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진구, 장수군, 용산구, 금천구, 강동구, 세종특별자치시	9
2018	동구, 대구광역시, 서초구, 강남구, 성남시, 태백시, 서대문구, 광양시	8
2019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밀양시, 원주시, 경상남도, 양평군, 수영구, 구리시, 울산 남구, 광진구, 부산 남구, 울주군, 노원구, 산청군, 울산광역시, 부평구, 하남시, 부산 북구, 충청남도, 광명시, 영등포구, 상주시, 성동구, 대구 서구, 대전광역시, 서울 중구, 속초시, 진천군, 청주시	29
2020	담양군, 안산시, 유성구, 음성군, 창원시, 대덕구, 익산시, 동대문구, 김해시, 군산시, 광진구, 전라남도, 광주 동구, 도봉구, 부여군, 경기도, 대전 서구, 강동구, 부산 동구, 마포구	20
2021	광주시, 광산구, 관악구, 천안시, 여주시, 정선군, 영광군, 홍성군, 용산구, 동작구, 대덕구, 안양시, 성동구, 대전 동구, 괴산군, 당진시, 충주시, 울산 중구, 진주시, 속초시, 울산 동구, 이천시, 영도구, 여주시, 광주 남구, 옥천군, 부산 진구, 부산 서구, 의왕시, 제주특별자치도, 성동구, 울산 중구, 중량구, 은평구	34
2022	대전 서구, 부산 동구, 인천광역시, 태안군, 평택시, 아산시, 남원시, 파주시, 청주시, 서대문구	1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 인천시

- 2022년 인천시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표 2-9>와 같이 청년을 제외한 1인 가구 정책의 대상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대부분이고, 독거노인의 안전, 고독사 예방 및 치매 관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인천시는 5060세대 1인 가구만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가구인 경우에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가 제공되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 해당 되는 사업임

〈표 2-9〉 2022년 인천시 1인 가구 정책

분야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안전	장애인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독거) 응급안전서비스 응급알리미 시스템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대응조치 	장애인복지과
	여성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여성정책과
	노인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기반의 독거어르신 안심폰 서비스 IoT(온도, 습도 동작감지 등) 활용 독거노인 위급상황 대처 유선 및 영상통화로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 화재감지기 설치, 사고발생 시 119 자동전송 	노인정책과
소득 및 일자리	탈시설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1인당 8,000천원 지원(1회에 한함)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인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장애인 월 488,800원, 최대 2년 지급 	장애인복지과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창업기업, 도약기업, 스마트혁신기업, 지역 전략 사업 일자리 지원 	청년정책과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지원)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 	노인정책과
돌봄	장애인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만6~65세 미만 최중증장애인 해당자 중 독거세대 및 취약가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애인복지과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생활보장과
	돌봄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돌봄플러그를 이용한 위기상황 예방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과
	치매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관리 ICT 기기 지원 사업 AI 스피커 '아리아' 지원 AI 활용 치매관리 사업 '치매안심 돌봄 케어콜' 서비스 	건강증진과

분야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건강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고위험 1인 가구 발굴 및 관리 - 정신건강, 자살 고위험군 선별 및 상담 지원 - 1인 가구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과
사회 관계	청년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1인 가구 프로그램 (일상생활, 자기 계발, 관계개선, 안전지원, 심리·정서·상담 등) 	가족다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청년정책과
주거	장애인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제공(최대 12개월) 	청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주택 지원하는 등 자립생활 준비와 정착을 지원함 	장애인복지과

자료 : 인천광역시(2022). 2022년 인천광역시 주요업무계획, 정혜은(2022). 인천시 1인 가구 특성과 정책방향. 재정리.

○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정책도 인천시 1인 가구 정책과 동일한 맥락으로 <표 2-10>과 같이 저소득 청년,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 5060세대 1인 가구만을 위한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음

<표 2-10> 2022년 인천시 군·구별 1인 가구 정책

군·구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동구	독거노인 및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의 이동 파트너 사업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이동 도우미 서비스 지원 	복지정책과
미추홀구	독거노인 및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홀 살피미업 - 최소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사이에 대상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 요청 알림이 30분 동안 울린 후 미리 등록된 다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긴급 구호 문자를 발송함 	복지정책과
연수구	저소득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에게 꿈을 드리는 청년드림마켓 - 매달 3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 된 청년드림꾸러미를 월 1회, 최대 2회 지원함 	복지정책과
	노인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인 텃밭상자 지원 - 집에서 직접 가꿀 수 있는 텃밭 상자를제공함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은빛사랑전화방) -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군·구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부평구	여성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안심서비스: 공공무인택배함 설치 	사회복지과
서구	노인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쿨&클린 독거노인지원사업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차단기,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설치 	사회복지과
강화군	노인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반 -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전 불편사항 처리 	자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이 월 4~5회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전 확인 	사회복지과

자료: 인천광역시 각 군·구별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정혜은(2022). 인천시 1인 가구 특성과 정책방향. 재정리.

(2)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서울시 1인 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함. [그림 2-7]과 같이 2022년 ‘1인 가구 안심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조직하여 1인 가구의 불안 해소를 통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과 1인 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4가지 추진 분야를 제시함

[그림 2-7] 서울시 1인 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 정책목표

비전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 1인 가구 안심특별시 서울			
목표	1인 가구의 불안 해소를 통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1인 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			
추진 분야	건강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확대 1인 가구 행복 한밤상 착한 먹거리 지원 	범죄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심마을보안관 전문성 향상 스마트보안등 확대 설치 	고립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활용 생활관리 리빙랩 시행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확대 	주거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2022.2). 주요업무보고.

- 2021년 1인 가구 정책 전담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사업 시범 추진
 - 기반조성: 전담조직·정책자문위원회·자치구 지원센터 등 운영체제 마련

- 실태조사: 여론조사, 연구용역 등 1인 가구의 불안·불편 분야별 심층 분석
- 선도사업: 병원동행서비스, 안심마을보완관 등 시범 추진 → 안심생활 지원
- 2022년 건강 → 안전 → 고립 등 '생활밀착형 지원' 본격화: 현장 수요기반 체감 정책 확대·발전을 통해 1인 가구 안심모델 정립
 - 생활: 혼자여도 불편하지 않은 건강 생활지원 체계 구축·제공
 - 안전: 1인 가구 밀집거주지역 야간안전 강화 및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 고립: 관계형성 특성을 고려한 소통공간 조성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2022~2026년 1인 가구 안심정책 주요 사업내용을 <표 2-11>과 같으며, 5060세대 1인 가구만을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1인 가구 행복한 밥상, AI활용 1인 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1인 가구 상담헬퍼 운영 및 경제자립교육, 맞춤형 안심일자리 확대와 같은 사업 운영
- AI활용 1인 가구 생활관리 서비스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일상 속 외로움, 고립감 해소 및 위기징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중장년 1인 가구 AI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만성질환 위험도가 높은 중 장년 1인 가구를 발굴·시범서비스 실시하고, AI 대화 기술을 활용해 안부 전화 및 생활관리 지원 기능 제공함. 불규칙한 생활습관, 건강 악화 등 위험 징후 발견 시 공공서비스 연계함
- 1인 가구 상담헬퍼 운영 및 경제자립교육은 50+세대 동년배 상담전문가를 활용하여 빈곤·우울 등 어려움 겪는 1인 가구 발굴, 상담·관계형성·일자리 정보제공과 1인 가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자산운용·연금 등 경제교육을 지원함

<표 2-11> 서울시 2022~2026년 1인 가구 안심정책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분야	과제	중점사업	주대상	추진목표	투자 규모
건강 안심	과제1. 건강걱정 없는 맞춤 건강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병원 안심동행	전연령	('22년) 15천명 ⇨ ('26년) 26천명	11,008
		서울형 1인 가구 헬스케어	청·중·장년	('22년) 5만명 ⇨ ('26년) 전시민	62,327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장·노년	('22년) 95천명 ⇨ ('26년) 99천명	199,314
	과제2. 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인 가구 착한 먹거리 지원	청·중·장년	('22년) 3,000명 ⇨ ('26년) 5,000명	440
	1인 가구 행복한 밥상	중·장년	('22년) 1,200명 ⇨ ('26년) 4,500명	2,190	

분야	과제	중점사업	주대상	추진목표	투자 규모
범죄 안심	과제3.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전연령	1인 가구 주거안심구역 51개서	22,967
		스마트보안등 교체	전연령	1인 가구 주거안심구역 51개소 보등 16,460등 교체	16,131
		고화질 CCTV설치	전연령	'22년 106개소 설치 후 지속 확대	6,375
	과제4. 범죄안심 홈세트로 내집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도어 지킴이	전연령	(‘22년) 3,000명 ⇨ (‘26년) 5,000명	2,424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전연령	'22년 106개소 총 9,800개소 설치	2,980	
고립 안심	과제5.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중·중·노년	(‘22년) 64천명 ⇨ (‘26년) 72천명	8,505
		시활용 1인 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중·장년	'26년까지 3,000명 이용	1,442
		생명이음 청진기	전연령	(‘22년) 2,500명 ⇨ (‘26년) 3,700명	3,250
	과제6. 경제자립과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	전연령	총 1,410명	1,125
	관계 형성프로그램 및 소통공간	전연령	'26년까지 9만명, 25개소	19,414	
	1인 가구상담헬퍼 운영 및 경제자립 교육	중·장년	(‘22년) 975명 ⇨ (‘26년) 1,380명	6	
	맞춤형 안심일자리 확대	중·장년	(‘22년) 1,550명 ⇨ (‘26년) 1,770명	156,312	
주거 안심	과제7.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오래~,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늘리겠습니다.				
		세대통합형 모델 개발·공급	전연령	총 1,300호 공급	211,563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	청년	총 69,010호 공급	4,610,432
	과제8. '내집 찾기, 내집 관리 어려움' 서울시가 덜어드립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연령	(‘22년) 1,000건 ⇨ (‘26년) 1,200건	2,544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전연령	총 7,500건	14,033	

자료: 서울특별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2022.2). 주요업무보고.

(3)경기도

- 경기도는 2022년 1인 가구 지원계획으로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3개의 목표를 설정함
 - 독립적 삶과 공동체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 구현
 -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정책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 상호 돌봄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1인 가구 지원계획의 추진방향을 4가지로 설정함
 - 취약계층 1인 가구 중심에서 보편적 1인 가구 정책으로 전환
 - ⇒ 「혼(자) 라이프 꿀팁교육」, 「1인 가구 재무경제 교육 및 재무상담」,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
 - 1인 가구 실태에 근거한 수요 맞춤형 정책 설계
 - ⇒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청년층 매입임대주택 보급」,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 사전컨설팅」 등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 개방적이고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 ⇒ 「중장년 수다살롱」, 「청년 전용 커뮤니티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1인 가구 공동체 마을 공동부엌」 등
 - 1인 가구 관련 지속적인 정책 대응 노력
 -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2023~2027)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비전과 목표에 기반하여 7개 분야 17개 실행과제로 추진전략을 설정함
 -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외로움·고립 극복 지원
 - 혼밥 개선 쇼셜다이닝
 - 홀로서기 지원
 - 건강지원
 -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 웰다잉(Well-dying)지원
- 5060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표2-12>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
 - 5060세대인 중장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는 중장년 수다살롱,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이 운영되고 있음.
 -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발달단계를 나누어 운영되는 사업으로는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재무상담 지원, 건강돌봄 프로그램이 있음

〈표 2-12〉 경기도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사업

사업명	개요	지원대상	수행기관	지원내용
중장년 수다살롱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 지원	중장년(40~64세)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및 도내 실거주 1인 가구)	가족센터 6개소 (하남, 광명, 김포, 용인, 안성, 의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준: 구성인원 5명 내외, 월 2회 이상 활동 지원금액: 분기별 30~50만원 (인원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분야: 취미, 자기개발, 문화 등 주제별 및 연령대별 활동 희망분야 취미(독서·여행·악기), 자기개발(언어·자격증), 문화활동(영화·연극관람) 등 성별(남, 여) 및 연령대별(40~60대 등) 활동 지원
돌봄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돌봄취약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지원 및 돌봄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1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관내 동물병원 (※ 21년 사업참여 시군: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 (최대 10일 이내)
1인 가구 공동체 공동부역 지원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식생활 개선 지원	도내 중장년층 1인 가구 15개 공동체 (만 40~64세 중장년층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공동체당 4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혼밥’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한 1인 가구 공동체 지원 지역 내 조리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부역·요리교실·식사프로그램 등 지원 식사 및 공동체 여가문화 등 연계추진 지원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1인 가구의 혼밥·식생활 개선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조리·식사 요리교실 운영	도내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및 도내 실거주 1인 가구)	가족센터 6개소 (하남, 광명, 김포, 용인, 안성, 의정부)	식생활 개선 및 1인 가구 간 연계를 위한 공동 조리·식사 요리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방법: 시군 수요, 지역사회 연계 자원 등 시군실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프로그램 당 4회기 내외 운영 참여인원: 프로그램 당 20명 내외 운영예시: 중·장년기 (1회) 건강 잡는 체질 탐색 (2회) 체질 개선 재료 탐구 (3회) 약이 되는 요리 교실 I (4회) 약이 되는 요리 교실 II
“삼시세끼” 제공 행복나눔터 운영	1인 가구 양질의 식사제공 및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급식사업 시범 추진	남양주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 (970세대) 중 200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사업자: ㈜풀무원푸드앤컬처)	경기행복주택 입주민에게 저렴하고 고품질의 삼시세끼를 제공(조식 3천원 / 중·석식 5천원)

사업명	개요	지원대상	수행기관	지원내용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1인 가구의 재무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향상 지원	도내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및 도내 실거주 1인 가구)	10개 시·군 가족센터 및 종합복지관 11개소 (의정부, 하남, 광명, 안성, 김포, 용인, 과천, 포천, 화성, 성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 상담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원 : 프로그램 당 20명 내외 • 운영예시 : 중·장년기 (1회) 노후자금 마련법 (2회) 금융투자 성향 확인 (3회) 노후자금 확인 및 계획 (4회) 추천 정부제도 활용 - 주택 마련 지원제도 등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도내 중·장년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 가구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중·장년 상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심리상담, 사례관리 - 심리 · 정서지원 전화 심리상담 - 사례관리 : 주 1~2회 전화 심리 · 정서 지원,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 정보제공 등 - 심리방역 문자메시지(온마음편지) 제공, 심리검사 - 마음돌봄 프로그램(마음돌봄 특강, 집단상담 등) • 추진방법 : 전화상담, 면접상담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1인 가구의 활동성 증진 및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 향상	도내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및 도내 실거주 1인 가구)	가족센터 6개소 (하남, 광명, 김포, 용인, 안성, 의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 참여인원 : 프로그램 당 20명 내외 • 운영예시 : 중장년 (1회) 홈트레이닝(요가 등) (2회) 갱년기 극복 필라테스 (3회) 경기 둘레길 걷기 (4회) 푸드테라피 집단상담
1인 가구 및 범죄취약 가구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1인 가구 및 범죄 취약가구를 위한 가구 내 지원	시범지역 내 1인 가구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벨 설치 및 긴급대응 지원 실증 테스트 단계를 거쳐, 비콘 비상벨과 스마트폰 앱 설치 • 보급제품 : 스마트폰 기반의 사용자 어플(경기안심앱), 블루투스 기반 고정형 비상벨 1종 • 지원내용 : 자가 내 비상벨 설치 지원, 긴급 대응 지원 등 • 시범지역 내 1인 가구 및 범죄취약가구 실증 테스트 완료(~'22) 비콘 비상벨 및 스마트폰 앱 설치 지원 등 사업 본격 추진('23 예정)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2022). 1인 가구 지원 사업.

제3절 소결

-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표 영역과 생애설계 영역을 중심으로 대인관계·가족관계·사회관계를 포함하는 관계, 건강 및 일상생활, 여가 및 취미, 재무, 일(소득활동), 사회공헌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함

□ 관련 선행연구 자료 결과의 시사점

- 관계는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5060세대 1인 가구의 우울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의 강도가 높은 대인관계 상태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5060세대 1인 가구는 결식 위험이 높아져 영양상태 저하 및 건강관리 측면에서 더 취약하고, 흡연과 음주에서도 다인가구의 중년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 및 일상생활 관리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됨
-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우울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거리, 물리적 환경, 비용 등) 등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따라서 5060세대 1인 가구의 중·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규칙적인 취미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여가서비스 제공시간의 다양화와 비용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5060세대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상태가 더 열악하고 고용 상황도 불안정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 조건과 함께 사회적 관계, 참여, 건강 등의 다양한 요인이 이들의 삶의 만족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총체적인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중장년 시기는 일의 의미가 경제적·재정적 요인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사회공헌,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계의 장을 마련하고, 일의 유형별 인생 후반기 설계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
- 사회공헌활동은 5060세대 1인 가구에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여겨지나 절반 이상이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사회참여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및 사례 자료 결과의 시사점

- 2020년 기준 전국 분포는 20~29세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시는 5060세대 1인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혼비율은 전국 분포에 비해 높고, 사회활동참여율은 낮게 나타나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적응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사회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함
- 노후준비 지원사업 및 정책은 5060세대 1인 가구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5060세대 노후준비 지원 사업 및 정책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사업 및 정책도 전 연령의 1인 가구 사업 중 일부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5060세대 1인 가구의 욕구와 실태를 반영한 노후준비 지원 사업 및 정책 수립이 요구됨
- 5060세대 노후준비 지원 사업 및 정책은 각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 5060세대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신중년세대에 특화시켜 신중년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 모두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50+관련 지원 조례들은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와 생애재설계지원 조례가 주요한 조례이며, 이외에 중장년(신중년) 지원조례, 일자리 지원조례 등이 50+세대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음
 - 지자체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내용은 교육상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의 사업으로 대부분의 조례에서 노후준비 50+세대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 관련 연구사업을 포함시키거나 노후준비, 재무설계, 가족생활, 인력개발, 인적자원 양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기도 함
 - 인천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후준비,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의 정책과제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에 지자체 최초로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였고, 2022년 기준으로 본부 1개소, 캠퍼스 6개소,

- 센터 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각 캠퍼스 공통적으로 각 기관별로 산재한 일자리·복지·교육·상담 등의 중·장년정책을 통합해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경기도는 중·장년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시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을 제안함
 -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사업 및 정책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일부로 시행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5060세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임
 - 인천시는 5060세대 1인 가구만을 위한 정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가구인 경우에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가 제공되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 해당되는 사업임.
 - 서울시는 5060세대 1인 가구만을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1인 가구 행복한 밥상, AI활용 1인 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1인 가구 상담헬퍼 운영 및 경제자립교육, 맞춤형 안심일자리 확대와 같은 사업 운영을 통해 1인 가구 안심정책을 펼치고 있음
 - 경기도는 중·장년 수다살롱,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재무 상담지원,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
 - 5060세대 1인 가구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의 욕구와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인관계·가족관계·사회관계를 포함하는 관계, 건강 및 일상생활, 여가 및 취미, 재무, 일(소득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

3

조사 설계 및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2022년 인천시는 1인 가구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연이어 인천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착수하기에 이룸. 실태조사는 외부 연구용역 기관에서 인천지역 3천500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및 개별면접조사를 수행함
- 인천시가 중심이 되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한정해 개별 심층면접인터뷰 사례조사를 계획함
- 정량조사에 비해 정성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에 대한 욕구 분석은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향후 세부적인 인구학적 특성에 기반 한 조사의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계획하게 될 경우 조사대상의 연령 범위의 간격을 좁혀 추가 정량조사 연구 설계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비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060세대에 집중하여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준비계획과 어떠한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전망해 보고자 함

2. 조사 설계

- 사회적 은퇴와 노화의 진행 등 생애전반의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5060세대의 노후준비 상태와 어떠한 준비와 계획이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함(표 3-1)

〈표 3-1〉 조사 설계 개요

구분	개별 심층면접인터뷰 조사	의견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내 1년 이상 거주자 • 출생연도 1953~1972년생 • 5060세대 1인 가구 총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및 인천지역 내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인천지역 내 유관기관 종사자 총 24명

구분	개별 심층면접인터뷰 조사	의견조사
기간	1회, 2022. 7. 18. ~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022. 03. 21. ~ 03. 25. • 2차 2022. 05. 30. ~ 06. 10. • 3차 2022. 11. 01. ~ 11. 18. • 4차 2022. 12. 08. ~ 12. 12. • 중간보고회 2022. 10. 07. • 최종보고회 2022. 22.
회차	14회차	6회차
방법	전화 및 대면	(비)대면, 서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가족, 사회) • 여가 및 취미생활 • 건강 및 일상생활 • 재무 및 소득활동 • 사회공헌(자원봉사)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인지도 및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전 단계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제안과 논의 및 의견수렴 반영 과정 진행

3. 조사 내용 및 방법

1) 개별 심층면접인터뷰

- 5060세대 1인 가구의 심층면접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질문지를 구성함. 질문지의 초안은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표 영역과 생애설계 영역을 중심으로 공통영역 중심으로 반구조화형식의 사전질문지를 구성함
 -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표 영역: 대인관계, 건강, 여가활동, 재무
 - 생애설계 영역: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 관계, 가족, 여가, 건강
 - 두 개의 공통영역을 중심으로 최종 관계(가족, 사회), 여가 및 취미생활, 건강 및 일상생활, 재무 및 소득활동, 사회공헌(자원봉사) 5개 영역으로 구성함
 - 기타 사항으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운영 조례에 명시된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조사대상의 연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어느 정도 기관을 인식하고 있고 요구사항을 탐색해 보고자 추가 질의 사항으로 포함함
- 인터뷰 조사 진행 시 질의에 대한 영역별 사전질문지 구성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음

〈표 3-2〉 인터뷰 사전질문지 구성 내용

구분	세부항목
대인관계(가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 현황 대인관계 확장 의향 원하는 대인관계 유형 관계 확장 시 필요한 도움 지원 기관의 역할 제시
여가 및 취미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활동 현황 관심 분야 및 준비 여부 프로그램 희망시간 및 비용 관련 기관 인지 여부 및 요구사항 프로그램 정보제공 방법
건강 및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현황 돌봄 능력 유무 돌봄 기관 인지 여부 희망하는 건강 지원
재무 및 소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기 예상되는 생활비 및 준비 여부 소득활동 여부 및 경험 노후 일자리 형태 교육 이수 및 비용 지불 의향 기관 인지 여부 및 요구사항
사회공헌(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의향 및 분야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인식 연부 요구사항

○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3-3〉과 같음

〈표 3-3〉 심층인터뷰 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7명 남성 7명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대 7명 60대 7명 전체평균 60.8세 / 50대 55.3세, 60대 66.3세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응답 3명 전문대 2명 무학력 1명 대학교 4명 고등학교 4명
혼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대 : 별거 3명, 이혼 4명 60대 : 별거 1명, 이혼 4명, 사별 1명, 무응답 1명
1인 가구 생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년 : 7명 6~10년 : 2명 10~20년 이상 : 5명 전체평균 9.3년 / 50대 5.9년, 60대 12.7년
소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대 : 정규직(제조업) 1명, 공인중개사(휴직) 1명, 아르바이트 1명, 자영업 2명, 계약직(건설업) 1명, 일용직(단순노무직) 2명 60대 : 일하지 않음(건강상) 4명, 일하지 않음(경제적) 1명, 노인일자리 참여 1명
건강상태 (중복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대 : 질환없음 3명, 암환자 1명, 고혈압 3명, 당뇨 1명, 관절염 1명, 기타(상해) 1명 60대 : 질환없음 1명, 암환자 1명, 고혈압 2명, 당뇨 3명, 고지혈증 1명, 기타(골절) 1명

2) 의견조사

- 5060세대 1인 가구의 노후준비에 대한 주제 영역별 대안 마련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안하는 의견을 분석함
- 본 연구의 질 담보를 제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토대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는 과정의 일환으로 삼음
- 전문가 자문 의견조사 수행의 추진 개요는 다음 <표 3-4>와 같음
 - 자문대상: 전국 대학 관련학과 교수, 국책 및 지자체 연구기관 연구자, 인천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자문방법
 - (비)대면 자문: 반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오프라인 대면, 전화 및 이메일, 줌(Zoom) 등 활용
 - 서면 자문: 반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자문 후 추가 질의사항 답변 요청(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완

<표 3-4> 의견조사 추진 개요

구분	조사기간	자문위원	내용	방법
1차	2022.03.21.~03.25.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설계 및 구성에 대한 논의 •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 • 인터뷰 조사 영역별 	• 서면
2차	2022.05.30.~06.10.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질문지 구성 틀 • 주제별 영역 질문 문항의 적절성 검토 • 기타 추가 및 세부 문항 제안 	• 서면
3차	2022.11.01.~11.18.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정책제안 모색 	• (비)대면
4차	2022.12.08.~12.12.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구성 체계 및 전반에 대한 의견 논의 	• 서면
중간보고	2022.10.07.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접인터뷰 1차 결과 분석 검토 • 2차 세부 분석 추진을 위한 방향성 논의 	• 대면
최종보고	2022.12. 22.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연구 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 논의 	• 대면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 본 절에서 다루는 조사 결과의 구성은 첫 번째, 개별 심층면접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결과로 5060세대 1인 가구의 영역별 현황을 다루며, 두 번째는 영역별 관련한 욕구는 어떠한지 살펴봄. 세 번째는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함

1. 심층면접조사

1)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현황 분석

(1) 네트워크 : 관계(가족, 사회)

□ 가족 중심의 네트워크 약화로 고립적인 상황 전개

- 가족과의 네트워크는 주로 자녀였으며, 일부 응답자 자신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친밀하거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남. 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호 거주지가 떨어져있거나, 신변상 결혼형태가 단절 또는 종결되는 이혼, 별거 등의 상황일 때, 원가족과의 소원함 및 단절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임

- 없어요. 원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옛날부터요. 이웃 간에도 놀러 안 가고 누나 오는 것도 싫고 옛날 건강할 때 부터.(사례 1)
- 연락을 했는데, 내가 방에만 있다 보니까 미안하고. 괜히 전화 오면 나한테 와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해요. 친구들은 많아요.(사례 2)
- 그때 이혼하면서. 한 20년 전에 이혼하면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이런 게 있어가지고.(사례 3)
- 아들이 있긴 있지만 요즘은 바쁘니까. 아무래도 나라에서 돌봄이라든지 제가 그런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사례 9)

-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평소 지속적·정기적 이거나 빈번하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남. 특히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고 각자 생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아들이죠. 그런데 몇 달째 안 좋게 지내고 있어요.(사례 1)
- 우리 딸이 연락해서 이제, 괜히 딸한테도 미안하니까. (그 외 연락하는 사람) 우리 누님들, 제가 막내니까.(사례2)

○ 지속해서 깊이 있게 소통할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1인 5060세대가 일반가구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수준일 것으로 사료됨. 반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유지하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되는 예가 있으며,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소수의 지인들과 간헐적인 안부를 묻고 지냄

- 예.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저기 맞벌이해서. 애가 지금 5학년인데, 애기 엄마가 너무 늦게 오니까 왔다 갔다 해요.(사례 5)
- 지금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동창이나 멀리 있는 애들은 가끔 보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변함없이, 더 꾸준히, 즐겁게, 건강하게. 건강이 첫째잖아요.(사례 5)
- 지인들하고 통화하죠.(사례 8)

○ 다수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응답자 주변에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혼자만의 삶,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노화를 겪으면서 활력이 감소하는 복합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외로운 것도 있고, 가족들하고 옛날에 같이 살던 것보다는 삶의 그런 활력이라는 게 그런 게 좀 덜하죠.(사례 10)
- 전에는 있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그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각자 살아온 인생들이 있으니까 고집들이 세요. 자기 주관이 세. 그래서 어떤 때는 잘 융합이 안 돼. 그런 게 있더라고요.(사례 12)
- 그러면서 얘기하죠. 지금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사례 13)
- 남자들의 대화라는 게요, 아무리 가까운 것 같아도 비슷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나 이런 게 비슷하면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걸치레 식으로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깊은 얘기는 못하죠. 서로 고민을 풀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고.(사례 14)
- 적어지고 대화 상대가 없고 막 이러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사례 14)

○ 지자체 및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인적 네트워크가 없거나 느슨해진 관계망

-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준 적 없어요(사례 1)
- 네. 동생들이 옆에서 살으니까, 답답하고 하면 거기서 이야기 좀 하고 그렇죠. 아노, 친동생은 없고 이웃 동생들(사례 4)
- 많이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만나고, 제가 원래 서울 살다 이사를 와서 인천에 여기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가 가까우니까 그 친구가 퇴근길에 들어서 소주 한잔하고 대리 불러서 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와서 사람들 여러 사람 더 만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위축되는 것도 있어요.(사례 11)

□ 5060세대 1인 가구의 다수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인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소극적인 양상

- 친구나 예전 직장 동료와의 대인관계는 유지하나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지속적인 소통엔 한계를 보임. 주로 근거리에 본인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향을 나타냄

- (직장동료)가끔 전화통화해요. 몇 달에 한 번씩.(사례 1)
- 글썽요.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현재 내 생각으로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 속 터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사례 4)
- 친구예요. 초등학교 친구들과하고 초등학교를 시골서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하고 유대관계가 제일 깊은 것 같아요.(사례 9)

- 기존 대인관계의 유지는 이동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사례 2)
- 한글도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짜장면이라도 먹고 싶고, 그런 경제력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사례 4)

-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부담감을 느낌

- 만나는 건 좋은데, 내가 도움이 안 되니까.(사례 1)
-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사례 3)
- 그냥 있는 사람 관리 잘하면서 만나고 싶은데요.(사례 7)
- 아무래도 평소보다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순수한 마음도 좀 없어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사례 10)
-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사례 14)

- 지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외롭고 그런 건 없는데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민 가려고 모아뒀던 자금을 얼마 전에 코인으로 또 다 날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멘붕이여서. 그거 외에는 혼자 있는 거는 이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편해요.(사례 11)

○ 새롭게 형성된 네트워크의 경우, 주로 돌봄 제공자로 종교 단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한 인력임. 주로 식사나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 여기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복지에서 보낸 거죠.(사례 1)
- 요 밑에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좀 갖다 줘요, 반찬을.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한 달간 쉬다고 그러시더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갖고 오셨어요.(사례 2)
- 요양 보호사나 사회복지사님들 도움. 뭘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사례 7)
- 집안 정리나 소소하게 이렇게 이제 식사 같은 거 있잖아요? 반찬거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도움이 필요하죠.(사례 10)

(2) 여가 및 취미생활

□ 상대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가 취미생활을 즐겼으나, 다수는 비용 지불에 부담을 지님

○ 여가활동의 경우 단순하거나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정도의 활동을 선호함

- 뭐 장구 같은 거. 그러면 조금 명랑해지지 않겠어요? 기악을 좀 배우다든가. 아 노래교실 이런 거 말고, 하여튼 무슨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좀 사람이?(사례 3)
- 네. 어딜 가고 싶어도, 여성회관에서 뭘 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를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아예 포기할 해버려요.(사례 4)

○ 여가활동에 제약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건강 악화와 경제적 부담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내가 걷고 그럴 수만 있으면. 여기 회원권까지 다 있어요, 구청에서 나온 거. 저기 노인문화센터.(사례 2)
- 뭐 어려움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뭐 돈이 받쳐줘야 되니까.(사례 3)
- 취미생활도 사실 어느 정도 자기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사례 10)
- 예, 제가 조금 지금 몸 상태가 힘들어요.(사례 12)

○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득별 차이를 보였으며, 적정비용은 3~15만원 정도로 생각함. 여가활동을 할 때도 경제·건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과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 다수를 차지함

- 헬스해요. 한 달에 3만 원.(사례 3)
- 지금은 노래 교실. 그럼요 딸이 내렸어요. 작년에는 3개월에 45,000원. 그랬었는데, 올해는 50,000원.(사례 5)
- 한 달에 헬스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5만원? 헬스장하고 골프하고.(결국에는 한 30만 원 정도 건강관리, 취미활동에 고요)(사례 6)
- 한 달에 8만 원, 너무 비싸요. 부담스러워요. 내 기준으로는 좀 비싸요.(사례 7)
-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청소년 회관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달에 3만 2천 원 정도?(사례 9)

○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여가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냄. 또한 외출이 어려워 여가 취미 활동 활동을 시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향을 보임

-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앉아서. 내가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 그게 제일 불편하고 그러니까.(사례 2)

□ 기타

○ 코로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복지관 및 센터 등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단되어 여가 및 취미 활동이 어려워진 사회적 영향요인의 경우가 나타남

- 아는 부동산 하는 이웃한테 말했더니, 동안에 한글 배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사례 4)

○ 개인적 선호 차이로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전에 직장 다닐 때는 골프 치러도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운동은 귀찮아가지고, 등산 이런 것도 싫어하거든요. 땀나는 건 아주 질색이어서 움직이는 거 싫어해요.(사례 11)

○ 복지관,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5060세대 1인 가구의 연령 및 이용 요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존 이용자의 연령이 높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한 번씩 노인복지센터인가는 내가 한번 가봤는데, 뭐 떼러 갔더니 노인네들이 거기서 많이 있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전부 80대 이상이야.(사례 3)

(3) 건강 및 일상생활

□ 건강상의 문제는 노후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가져옴

○ 경증에서 중증까지의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다수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음. 증상이 없거나 경증의 경우 식단이나 운동관리 위주로 생활함

- 네. 운동하고 그래야죠. 운동이 최고니까, 우리 나이에는.(사례 3)
- 없어요. 걷는거 이 외에는 없어요. 약 먹는 것뿐이에요.(사례 4)
- 수영은 여러 날마다 매일 나가는 거지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게 어디 있어요.(사례 8)
- 홍삼도 먹고, 챙겨 먹는 약이 한 세 네 개 돼요. 운동을 안 하니까 약으로라도 버텨야지.(사례 11)

○ 응답자의 질환 정도가 중증일 경우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함

- 아니요. 전혀 못해요. 숨이차서. 허리까지 무섭게 아파서. 시장가는 것도 무서워요. 시장가려고 마음 먹으면 약 먹고 졸았다 나가야 하는데 숨차서 허리가 아프지. 어디 나갈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사례 1)
- 걸었었는데, 허리 아프고 시원치 않으니깐 어렵도 없죠.(사례 1)
- 택시 하다가 뇌경색을 걸려가지고, 이제 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사례 2)
- 아니요. 아예 일을 못 해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사례 4)
- 아니요. 목발에 의지하고 다녀요.(사례 7)
- 그래서 저 말고 지금 이렇게 저처럼 항암하면서 혼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속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세탁도 힘들고 청소도 힘들고, 병원 통원 치료할 때 교통편도 힘들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사례 12)

□ 건강 악화로 여가 및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함. 특히 60대는 건강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한 경우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짐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섭식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건강하지 못한 신체는 결국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져와 전반적인 생활이 악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 그냥 한가지로 먹어요. 한 가지로만. 어쩌겠어요. 시장은 못가겠고. 허리가요 젊을 때부터 아팠어요. 허리가 척추? 디스크하고 허리가 두 가지예요 아픈게.(사례 1)
- 지금 현재는 한 50m 정도는 걸을 수 있어요, 지팡이 잡고 걷는 거니까.(사례 2)
- 예, 그래서 무도 제가 담가서 먹고.(사례 2)
- 해보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 해요. 하고는 싶어요 진짜.(사례 4)

-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느껴 관계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네트워크가 축소되었을 때 방문 생활지원사가 유일한 대화 상대인 경우도 존재하며,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음 자체가 고통이죠.(사례1)
- 병원 가려면 차를 두 번 갈아타야되고 버스를 타려면 걸어야 되고 그래서.(사례 1)

(4) 경제활동

□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는 소수로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임

- 경제활동 인원은 소수로 이 경우에도 생활에 적정한 소득이기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았음. 대다수는 현재 일용직이거나 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일반식으로 한 것은 50대 초반에, 그 전에는 직원으로 있었어요.(사례1)
- 그래 가지고 택시 한 5년 했나, 택시 한 5년 정도 하고서는 이제 뇌경색이 걸렸어요. 그러니 이게 뇌경색 온 지가 지금 5년 된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어요.(사례 2)
- 예전에는 주방에서 참도 같은 걸로 일을 했고요, 최근에 그만둘 때는 닭집에서 일하다가 당뇨가 심해서 10년 전쯤에 그만뒀어요.(사례 4)
- 저는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일을 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 빌라 같은데, 3년 전부터 계양구에서는 그걸 하거든요. 주택, 빌라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안돼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막 갖다 버리고... 그래서 3년 전 가을부터 15명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서 일자리 센터라고 해서.(사례 5)
- 영업 쪽 일하고 있어요. 제조 업체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영업 쪽에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려는 비즈니스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소개 영업 이런 것도 지금 마지막으로, 벌써 시작을 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는데.(사례 6)
- 네. 부동산업이 한 3년 전부터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있어. 잠시 문 닫았어요.(사례 7)
-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사례 9)

- 월 생활비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남. 적정한 생활비 수준은 80만 원 이상을 원하나 현실적으로는 30~50만 원 선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

- 내 생각에는. 한 20~30만 원만 더 있으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는데, 그건 제 욕심이겠죠. 지금 현재 전 달까지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사례 2)
- 그래도 1인 독거하면 한 80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사례 3)

- 네. 50만 원인데, 이거로는 어려워요. 한 8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사례 4)
- 혼자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이게 보험을 들어놔서 문제인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현재 기준으로 한 150? 쓸 수 있는.(사례 6)
- 지금 내가 나이 먹어도 한 150만 원, 최저 생계비로 150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사례 7)
- 한 15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사례 10)
-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최소.(사례 11)
- 저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넉넉지는 않더라도 내가 좀 절약하면서 쓰면, 현재 물가 상황을 봤을 때, 100만 원 정도면 살 것 같아요.(사례 12)
- 저는 한 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봤거든요.(사례 14)

○ 경제적인 부분에서 열악한 경우가 다수로 현재의 경제활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며,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생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 나라에서 받는 게 60만 원 밖에 더 돼요? 63만 원인가 이렇게. 왜냐하면 나라에서 받는 거는 내가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가 받아요.(사례 3)
-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데를 알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일자리랑 연결되는 자격증 딸 수 있는 곳.(사례 9)

□ 노후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준비한 경우라도 지병이나 경제 상황 악화로 빈곤이 가속화되는 상황임

○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설계를 통해 사전에 준비해 온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경제적 여유가 있던 경우라도 건강 악화나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대비책이 없어진 상황임

- 없죠. 지금은 없어요.(사례1)
- 그런 것들은 없어요. 저축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려웠고, 딸도 어려웠고, 혼자서 하는 게 힘들었죠. 남편이 4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혼자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사례 4)
- 네.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나를 이렇게 말린 거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집합 금지시켜가지고, 정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정부에서 나를 이렇게. 열받는 거죠.(사례 8)
- 항상 월급으로 살기 바쁘니까, 애들 키우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딱히 제 나름대로 다른 보험 같은 거 둘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사례 9)
- 전에 노후 대비해서 제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아들 결혼시키고, 이제 그 가게 하면서 내 노후로 살으려고. 그러다가 건강 때문에 그거 다 가게 처분하고, 그 돈도 건강을 위해서 써버렸어요.(사례 12)

○ 노후준비는 주로 연금으로 확인됨. 개인연금의 경우 직장생활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경우가 긍정적 상황이며, 대다수는 국민연금 등으로 확인됨

- 노령연금하고 내가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 때 3만원 시작해서 한달에 26만원 나와요. 노령연금하고 그걸로 살아요. 52만원인가?(사례 1)
- '국민연금' 조금 나오구요, '노령연금'도 나오요.(사례 5)
- 국민연금은 한 180만 원 정도 나와요. 사적 연금은 65세에서 70세 사이에 한 150만 원 정도 나오요(사례 6)
- 전혀 없어요. 국민연금 넣는 것밖에 없어요.(사례 7)
- 국민연금 들어있고, 우리 아이들이 스무 살 때부터 나 이 다음에 노후에 타 먹으라고 연금을 들고 있다고 하더만? 얼마 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얘기 안 하다가. 그래서 연금이 얼마 나오겠조.(사례 8)
- 연금도 조금 나오고 소일거리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사례 9)
- 아직은 경제적인 여건이 풍족치 않아가지고요. 딱히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냥 국민연금 옛날에 들어놓은 게 있고, 그 정도 외에는 아직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사례 10)
- 지금은 가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직장이 없어서.(사례 10)

○ 일부는 '내 집'을 노후 준비금으로 생각해 이를 활용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지님

- 내 아파트가 자가니까, 요새는 나라에다 내가 아파트 맡기고 생활비 받을 수 있잖아요. 노후에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 나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노후 걱정은 안 한다고요.(사례 8)
- 다른 건 없고, 조그만 집이 있으니까 나중에 꼭 안 되면, 너무 힘들면, 역모기지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사례 9)
- 저기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거를 팔면 노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사례 14)

(5) 사회공헌(자원봉사)

□ 직장 및 종교 생활 중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해 본 경우는 소수임

○ 사회봉사 활동은 경험해 본 경우가 많았으며 경험 횟수는 차이가 큼

- 저는 누구하고 여럿이 모이는 거 그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싫어요. 밥 먹으라 복지관에서 오라 그래도 썩스럽고 또 내가 그전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남을 돕고 살았던 사람이라.(사례 2)
- 혼자 사는 아줌마들 가정 갖고, 이제 배추 이런 거 김장 같은 거,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전에는.(사례 2)
- 한 몇 번 했어요. 성당 다닐 때.(사례 6)
- 일단 성당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해요. 지금은 다쳐서 못 하지만, 독거노인들 밥 배달, 청소, 아기 돌봄 그 정도. 배달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사례 7)

○ 경험을 해 본 경우, 자발적 참여보단 직장 등을 통한 경험이 많았음

- 저는 직장 다닐 때 강제로 고아원이라든 보육원, 양로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돈을 기부를 하게 됐었어요. (사례 11)

□ 자원봉사 욕구가 있더라도 건강상의 문제로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으며, 자원봉사 욕구 자체가 크지 않음

○ 여건이 된다면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음

- 돈 있으면 많이 하고 싶죠. 불쌍한 애들 돈으로 기부 좀 하고, 저는 아프리카 난민 도와달라고 세이브더칠드런 나와가지고 호들갑 떠느니, 진짜 농촌에서 엄마 아빠 다 이혼하고, 무연고 이런 고아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는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사례 6)
-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그전에 작성 했었어요. 거기에 그게 꼭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못하니까. 막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봉사 계획했던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인생이 다 실패, 다 망가진 것 같아서 처음에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사례 12)

○ 건강상의 문제와 시간 부족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함

- 워낙 바쁘고... 또 애들 키우느라 여행 못 다녀봤어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어서,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사례 5)
-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막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몸에 병이 오면서,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사례 12)

○ 자원봉사활동을 꺼리는 경우도 상당수 응답됨

- 그런데 저도 그렇게 몸이 건강하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사례 9)
- 그거요. 굳이 뭐. 그래서 나는 봉사활동이라는 단어에 좀. 남한테 봉사받을 일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제 주의예요. (사례 11)

(6)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본인 삶에 대한 자기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삶에 대한 자기 평가는 5점 만점 시 평균 2점 정도로 응답함

- 건강관리 못하고 있어요. 건강이야 이런 거 저런거 따지면 3점?(사례 1)
- 저희 2번이나 3번이요. 아픈 거 제외하고는 없죠. 아프지만 않으면 내가,(사례 2)
- 현재 생활로 치면 2점 정도.(사례 4)
- 5점 만점이지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힘들게 32살 때부터 키웠거든요. 애들을 가르치고, 시집보내고 항상 이렇게 정말. 또 카드라는 것이 나와서 셋을 다 대학 보내고, 시집보내고.(사례 5)
- 3점은 '보통이다' 정도인데,(사례 6)
- 2점. 살기 힘들어요.(사례 7)
- 전반적으로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사례 8)
- 3점이지요.(사례 9)
- 지금 사는 생활이요? 1점밖에 안 돼요.(사례 13)
- 1점이죠.(사례 14)

○ 앞으로 다가올 또는 남아 있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 클쎬요. 혼자 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사례1)
- 돈 벌기가 제일 힘들어요.(사례 7)
- 이제 신랑이 없잖아요. 애들 키울 때는 이제 애들 때문에 좀 신경을, 학교 이제 가르쳐야 되고, 애들 출가시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늘 긴장했었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결혼시키려면 또 딸 같으면 괜찮은데, 나는 아들만 둘이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은 긴장하며 살았는데, 다행히 다 이제 학교 졸업시켜서 출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있죠.(사례 8)
- 편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틀어놓고 옷 빨라 벗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옷 좀 입고 다니라고, 옷을 그렇게 자주 벗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샤워하고 나오고 그러면 옷 벗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고 그런 걸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사례 11)
-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것뿐이죠.(사례 13)

□ 1인 가구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확인됨.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삶에 대한 자기 평가는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남

- 예. 아무래도 이제 의식주를 직접 챙기는 게 제일 번거롭죠. 직접 본인이 해서 먹어야 되고, 본인이 다 정리해야 되고, 또 본인이 구매나 이런 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살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번거롭고 힘들죠(사례 10)
- 음식을 해 먹기가 좀 그래요. 이런 재료들을 소분해서 파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 보고 요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또 입이 짧은 편이어서 그때만 잠깐 먹고 나면 먹기가 싫어져서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십쎬(사례 11)

2) 인천시 5060 세대 1인 가구 욕구 분석

(1)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

관계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욕구는 있으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지속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

○ 유사 환경의 주변인들과의 소통확장,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함. 대인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 욕구가 충족되었으면 하나 한계를 경험함

- 내가 주눅이 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가진 게 없고, 내 몸이 아픈 게 주눅이 들어서,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오라고 전화 오면 그냥 가서 조금 앉았다가 오는 건데, 전화가 안 오면 남의 집에 못 가요. 성격이 남의 집갈려면, 그 사람이 전화해서 “언니 놀러 와” 하면 가는데, 그 소리를 안 하면 저는 못 가요.(사례 4)
- 같은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니까, 요즘은 카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동호회에도 가고. 제가 보니까 제 아는 분도 파크골프를 하면서 친목을 쌓고 하더라고요, 새롭게.(사례 9)

○ 젊은 세대와의 교류 확대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임

- 지금 나이도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내가 조금 더 베풀어야 될 텐데, 그런 여건만 되면 그런 마음인데요. 내가 받고 싶은 것보다 내가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밥을 사도 내가 더 많이 사주고 싶고 그렇지. 근데 여건이 돼야지.(사례 7)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삶의 유지를 원함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지식을 돌봄 제공자를 통해 습득함

- 선생님하고는 좀 해요. 선생 온 지가 일 년이 넘었는데, 선생님하고는 좀 얘기하고. 문자 가르쳐줘서 문자, 서로 선생님하고는 해요.(사례 2)

○ 국가나 지자체 중심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도 있음

- 아무래도 이제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접촉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주관이 된다고 하면, 유사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기관에서 볼 때.(사례 10)

(2) 여가 및 취미생활

□ 기존에 관심 있던 분야 중 적은 비용으로 여가·취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선호

○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으로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프로그램 선호

- 제 방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책 같은 거 그런 종류죠. 동네에서 하고 그러는 거.(사례 10)

○ 여가 및 취미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고려됨

- 문화센터에서 춤 배우는 것도 하고 싶고요, 글 쓰는 것도 하고 싶고요, 그림도 배우고 싶고, 공예도 배우고 싶어요, 나무 공예. 한옥 집 짓기도 배우고 싶고, 많은데 나는... 한문도 배우고 싶고, 외국어도 배우고 싶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항상 시도만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워서. 일어, 중국어, 영어는 기본으로 배우고 싶고요, 여행을 또 좋아해서 기회 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요.(사례 7)

□ 국가 및 지자체의 여가·취미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 홍보 강화 필요

○ 여가 및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네 충분하지 못하죠.(사례 4)
- 주민센터에서 보면 이렇게 강좌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뭐 만들기도 있고, 붓글씨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신청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로 낮에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사례 14)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시 운영주기는 주 1회에서 5회까지 다양하게 제시됨

- 일주일에 한 번이요.(사례 5)
- 일주일에 5일요.(사례 7)
- 두 번 하고 있어요.(사례 9)

○ 코로나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을 멈춘 경우가 많음. 그간 이용하던 프로그램도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위드코로나에 맞춰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방법이 마련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스포츠댄스하고 노래 교실을 다녔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사례 9)

(3) 건강 및 일상생활

□ 건강 악화는 일상생활 전반에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1인 가구는 대다수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지역 기관이 건강 및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 요구

- 전반적으로 5060세대 1인 가구의 건강상태는 나쁜 것으로 확인됨. 특히 건강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직결되고 있었음
- 현재 제공 받고 있는 지원은 주로 반찬서비스 등이며, 병원 방문이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가족이 있어도 매번 동행에 한계가 있어 이동 서비스 제공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그걸로만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서 할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것도 계속 가다 보면 만만치 않더라고요.(사례 4)
-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전이 항상 1순위예요.(사례 4)

□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건강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건강이 악화할 때 고독사 등의 우려가 있음

- 우리 친구는 치매에 걸렸는데, 이걸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게 치매가 딱 돌았다고 그러면, 솔뚜껑에 뭐가 있는지 고추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게 혼자니까, 그러면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사례 3)
- 아플 때, 나도 모르게 치매가 들어왔다던가. 그러면 전혀 나도 모를 거 아니야.(사례 3)

(4) 경제활동

□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월 80~150만원 정도로 판단했으나, 다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임

-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계획은 사륜 오토바이 사서 노점상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지금은.(사례 2)
- 국민연금 은 날 형편이 못 돼 갖고 여태 한때는 냈었는데, 지금은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따로 노후 보장 자축이라든지 할 생각,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만 있지 현실적으로 안 되네요.(사례 13)

○ 단순노동 등 지속적인 소득 활동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소수에게서 확인됨

- 제조 같은 거에서도 노인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앉아서 머리 쓰는 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편할 것 같아요.(사례 9)
- 아무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축을 하려고 하면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 신경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사례 10)

○ 경제활동 지속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다수는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함. 또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경제활동보다는 쉬을 원하는 경우도 많음

-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센터에 가서 나 요새 컨디션 좀 나아졌는데 간단한 일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펄쩍 뛰어, 누구를 잡으려고 일을 달라고, 일 절대 못 하니까 가만히 계시래. 근데 그건 무리예요. 제가 해보니까요.(사례 12)

□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과 업무 난이도, 근무 기간을 확인함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도 수급자인 경우 별도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어 아예 포기하는 예도 있음. 이 경우 사고나 건강 악화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게 되거나 일시적인 경제활동으로 그칠 것을 우려해 경제활동을 시도하지 않음

- 저는 안 되죠. 저는 수급자로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수급자 조건에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사례 2)
-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20~30만 원 정도씩 벌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중략)그게 언제까지나 이거야.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내 나이에는, 사고가 나 버리면 이거 잃고 저거 잃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사례 3)

○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직접적인 소득 수단이 될 수 있는가임

- 예, 그런 거는 내가 많이 들어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움직일 때까지는, 그 구슬 끼우는 거. 그런 것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사례 2)
- 앞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교육은 간병인 교육.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게 한 달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늦게까지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딸 집에 가서 손녀 밥을 해줘야 하니깐. 딸 집에 안 갈 때 자격증 따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사례 5)

- 비용이 들면 조금 고민하죠. 네. 그게 비전이 있는 거냐, 투자한 만큼 돈벌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사례 6)
- 한 달 기준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할 때, 그냥 단순한 정보성 세미나 말고요. 예를 들면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일자리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사례 10)

○ 직업 교육 시 요구 직종은 실습 위주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임

- 대신 졸업하고 나서 반드시 취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사례 4)
- 자격증 같은 거나 실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서 투입해서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사례 9)
- 글썄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그러니까 요새 이제 주위에서 요양보호사 때문에 그 자격 얻으려고 교육받고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 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사례 12)
- 실기 위주로 해가지고.(사례 14)

○ 만약 직업 교육 이수를 위해 자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용 금액 범위의 폭이 큼

- 네. 15,000원 들어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사례 4)
- 그것도 나라에서 좀 지원해주고 제가 이제 몇만 원 정도? 한 5만 원 정도가 그 정도 선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례 9)
- 한 달 기준, 10만 원 이내? (사례 10)
- 교육비 20만 원 한도 내.(사례 12)
- 한 달에 10만 원이면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상관없어요. 많이만 보장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배울 수 있으면 좋죠.(사례 13)
- 한 달에 재료비도 있고 하나까 50~60만원?(사례 14)

□ 구직 등의 정보는 주로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 일자리 지원 기관임

- 구직을 위한 정보는 주로 구청 등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기관을 통해 얻었음. 구체적인 기관명을 알진 못하나 구청의 해당 과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관련 기관을 통해 직·간접적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음. 특히 구직 정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 중 상당수는 주변 지인을 통한 것임

- 취업 상담센터, 인력 지원센터는 안 가봤어요. 들어는 봤죠.(사례 3)

(5) 사회공헌(자원봉사)

- 자원봉사를 원할 경우 어떤 활동이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함
- 사회봉사는 외로움 해소, 단순한 시간 보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는 활동을 선호함

• 연세 드신 분, 저는 어르신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게 보람되고 좋을 것 같아요.(사례 13)

(6) 정책적 지원 기관 및 내용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주로 바우처나 주거 방문 서비스가 주를 이룸
- 알고 있는 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재가방문서비스이며, 그 외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높았음

- 여기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복지에서 보낸 거죠.(사례 1)
- 그냥 노인돌봄 서비스.(사례 11)

- (각종 지원사업)을 알 수 있게 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진 못하나 주로 들었거나 현수막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많았음

•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네요.(사례 11)

-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서비스는 주로 바우처나 재가방문서비스로 나타남

-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소득 좀 해달라니까 아들 때문에 안된대요. 그래 가지고 다다니고 했는데 주거가 월세 거든요. 월세를 4만6천원인데, 그거 면제 받았고 한달에 한번 반찬 만들어서 주고 그래요.(사례 1)
- 바우처요.(사례2)
-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청소해 주고 그러는 분 계세요.(사례 2)

-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주변 지인이나 기관 홍보를 통해 접하게 됐음이 확인됨

- 그거는 밑에 아주머니가(사례2)
- 노인 일자리 센터(사례 5)

3)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대한 인식

□ 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주문함

○ 센터에 대한 인지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임이 확인됨

- 어디요? 처음 듣는데요?(사례 1)
- 못 들었어요.(사례 2)
-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사례 6)

○ 연령, 계층을 고려한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마련

- 그러니까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그리고 76세부터 85세나 90세까지 이렇게 하든가. 거기서 조금 아픈 사람들은 이제 다 요양으로 들어가겠지. 그 전까지는 취미 생활이 비슷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사례 3)
-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 내에서도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사례 10)

□ 5060세대 1인 가구가 제공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제공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홍보 강화가 필요함

○ 홍보 및 정보전달 방법의 다양화 모색

- 네. 카톡이 무난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메일도 안 보니까.(사례 6)
- 핸드폰이면 가장 편하죠. 근데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핸드폰이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문자나 카톡이요.(사례 7)
- 핸드폰이나 우편물이나.(사례 7)
-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데, 아파트 1층에 붙여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사례 9)
- 편하기는 스마트 기기가 편한데, 편한 반면에 많은 그런 제약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받고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대면을 통해서.(사례 10)

- 명확한 건 우편이 명확하겠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수시로 이렇게 알려주면 좋죠. 카톡이 대중화돼 있으니 카톡으로 알려주면 한 번 보겠죠?(사례 13)
- 예. 일단 문자 주고 연락 없으면 전화라도 해서 알려줘야죠. 전화를 잘 안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사례 13)
- 아무래도 집으로 올 수 있는 우편물? 우편물이나 아니면 유튜브라든가.(사례 14)

○ 각종 노후 생활 관련 정보제공의 주체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대한 인지도 확산 및 센터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확대를 통한 지원사업 관련 정보전달에 매진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이런 혜택들이 있다. 이번 달에는 당뇨 걸린 사람들 아니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가 있다. (사례 6)

2. 전문가 의견조사

1) 5060세대 1인 가구의 정책적 지원 내용 및 방향성

□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지원 대상화의 어려움

- 5060세대 1인 가구를 정책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관점이 선행되어야 함. 즉 일부는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인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상자도 분포하고 있기 때문임
- 5060세대 1인 가구 중 우선 지원 집단의 구별과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분석이 선결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5060세대를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세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 그러나 5060세대 1인 가구의 경우 공적 지원망에 편입된 적이 없는 가능성이 높고, 재취업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야 함
-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전이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책적 공백이 우려되기도 함

- 시급성으로 볼 때 취약계층으로 명명하는 그룹의 대상자의 정책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지만, 일반적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원 역시 소홀함이 없어야 함. 이유는 예방적이며, 자립적인 기능을 최대한 연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에 해당됨으로 5060세대 1인 가구의 정책적 지원 방향은 양방향으로 모색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5060세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별 세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 함

□ 다각적인 사회관계망 지원

- 전통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 외에 공동체, 유사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관계적 유형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검토해야 함
- 유사한 생활태도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5060세대 1인 가구 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물리적으로 지역 거점별 공간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호회, 동아리, 소모임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여하며, 자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함

□ 생애주기적 접근에 근거하는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지원

- 50대는 노후준비 설계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60대는 노후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각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생애주기 중반을 지나 후반부인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놓여진 연령적 시점과 1인 가구는 점의 특성을 인식하여 삶에 대한 재교육, 재사회화 등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함

□ 지역별 형평성 및 지역적 특성 검토

- 인천의 경우 도시, 농촌, 어촌, 도농복합형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으므로 각 지역 내 5060세대 1인 가구 인구분포 및 욕구 파악에 대한 자치구별 실태조사가 요구됨
-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 자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심리지원 강화 및 사회적 관계 지원 강화

-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바, 1인 가구의 건강상태는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1인 가구 간 건강 수준의 격차는 중년층에서 가장 크고, 중장년 1인 가구의 우울 의심과 자살 생각을 또한 다인가구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소셜다이닝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함
- 만약 생활주변과의 관계 단절이 지속될 경우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생활중심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지역과 연령을 망라하고 발생하는 젠더폭력 관련 이슈는 특히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함.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불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제공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골목길 조도 정비, CCTV 설치, 비상벨, 사각지대 내 반사경, 주거 출입구 보안시설 설치, 방범창 설비, 각종 안심물품 배부 등 수요에 기반한 지원을 고려해야 함

□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지원 분야

- 1인 청년가구와 마찬가지로 5060세대 1인 가구 역시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우선되는 경향을 지니며, 전체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직·간접적인 주거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5060세대 1인 가구는 건강과 재무 분야를 기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음. 이 두 가지 분야에 따라 경제활동 여부, 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 및 취미, 사회공헌의 순으로 도미노식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설명함

2)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지원 시 고려사항

□ 인천시 전달체계 내 부서 간 기존 정책검토

- 인천시의 경우 202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예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적 배경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5060세대 중장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며,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그러나 향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유사성,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정책과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에 대한 계획을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설계될 수 있어야 함

□ 정책지원 대상의 보편성과 통합적 사례관리

- 복지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등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고, 끊임없이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5060세대는, 특히나 1인 가구일 때 취약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용되기도 함. 그러나 다차원적인 문제를 지닌 5060세대 1인 가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정책 대상의 보편적 관점을 통해 바라보고 검토하여 지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 5060세대 1인 가구는 경제적인 빈곤과 건강상의 문제(정신, 신체),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복합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어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단절 그리고 고독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실업이 되면서 겪는 경제적 빈곤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동시에 분석하고 살피는 통합적 정책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자립원칙의 관점

- 5060세대는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해 길어진 노년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 돌봄의 시기를 연장하고, 스스로 삶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시점으로 바라봐야 함

□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 국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음. 정책 대상자가 삶과 생활에 뿌리내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계 등 다양한 공공의 목적을 지닌 기관들로부터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 네트워크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각 특성의 성향 고려

- 여성의 경우 많은 수가 경제활동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단절되면서 소득이 부족하여 돌봄이 부담되는 경향이 높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안정해지는 일자리, 취업시장에서 연령과 성에 대한 이중차별, 범죄 피해, 안전에 대한 불안함 등을 경험할 위험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편임
-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인 대인관계 측면에서 제한적인 양상으로 생활한 결과 여성보다 취약하여 고립될 가능성이 높음. 평소 돌봄 및 가사노동이 미숙해서 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왜곡된 남성다움을 강요받았던 세대인 점, 정서적인 지지망이 취약한 점 등 여성과는 다른 어려움의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성별, 연령별 다양한 특성별 정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함

4

정책제언

제1절 결과 및 논의

제2절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제3절 연구 함의 및 향후 과제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결과 및 논의

1. 심층면접 인터뷰 결과에 대한 논의

- 5060세대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층적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건강하지 않은 신체와 맞물려 일상생활, 여가 및 취미생활, 대인관계에 이르는 삶 전반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건강하지 않은 신체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함. 건강 악화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림돌로 작동함
 -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1인 가구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감뿐만 아니라 퇴직 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감, 온전히 경제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의 불충분한 노후준비, 65세 이전의 연금 수급 어려움과 복지혜택에 대한 소외 등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파악함(송민혜, 2021)
 - 5060세대 가구에서도 경제적인 불안 상황이 건강, 여가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악순환이 형성되는 순환구조의 틀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됨
 - 경제적 어려움은 여가·문화 활동의 제약을 가져와 삶의 질을 낮추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심리적 안정 및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신적 안녕이 일상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 강화해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확보가 요구됨.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역, '구'를 중심으로 통합형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송민혜(2021)의 연구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봄
 - 안기덕(2021)은 커뮤니티케어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한 곳에서 서비스 안내 및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함
 -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요구

- 중장년 1인 가구를 외로움에 방치되거나 퇴직 후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고립, 연금 수급 이전까지 경제적 공백기가 길어지면 빈곤과 고독사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진단한 바 있음(송민혜, 2021)

□ 노후 준비에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개인 삶의 로드맵’ 마련 교육 필요

- 네트워크에서 건강, 경제,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까지 노후 삶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후준비’ 교육과 프로그램 마련
- 만성질환이 증증 질병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50대 초반부터 관리가 필요함
 -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를 나눠서 책임지거나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계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봄(송민혜, 2021)
-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직무교육을 제공해 50대 초반부터 노후를 지속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이 필요함

□ 5060세대 1인 가구의 특성에 기반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

- 각종 복지제도가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5060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함.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큼
- 실직이나,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한 만성적 빈곤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분야별,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과 제공이 필요함
-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의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 극복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함

□ 고령자 정책 및 연구의 컨트롤타워로의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기능 강화 실현

- 5060세대 및 중장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중장년층의 생애주기 단계에 적합한 각종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을 강화해야 함
- 인천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 전략을 통해 정보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함

- 송민혜(2021)의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일이 무엇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함

2. 전문가 의견조사에 대한 논의

□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적 지원 내용 및 방향

○ 정책적 지원 방향성

- 5060세대 1인 가구를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지향점은 이 세대가 처한 사회적·심리적·경제적·문화적 모든 요인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자문위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 정책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핌
- 연구 대상인 5060세대 1인 가구 모두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이 아닌 그룹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적합한 도움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대상자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함
- 5060세대 1인 가구를 정책적인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 번째는 앞서 언급된 바처럼 각기 지닌 특성에 따라 외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 그룹과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자립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더 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욕구를 지닌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책의 다변화 지원이 요구됨

○ 정책적 지원 내용

- 5060세대 1인 가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은 파편적으로 발생하는 파편적 영향이 아니라 다중적 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음
- 지원해야할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대상자별 어떤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선택가능 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처럼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주택(거) 정책, 주거지 근거리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일정량의 소득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제(일자리, 소득)정책, 그리고 1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위급 시 도움이 부재하거나, 심리적 위기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광의적인 돌봄정책, 교육과 관련해서는 연구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전 연령에서부터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세부적으로 각 연령대별 특성분석을 통해 사전예방과 재사회화 교육적 관점 등을 반영하는 생애교육 정책이 마련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교육, 사업) 제안(안)

○ 주택(거)정책

- 소형임대주택, 노인보호주택, 공동체 주택 등 기타 주택관련 수당제도 고려
- 협동주택, 집합주택과 같은 코하우징으로 주거지원 및 사회적 유대감 형성 및 유지
- 주거 안정성에 대한 대안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체계 구축.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CCTV설치, 비상벨(화재, 재난, 범치 등 대처)설치, 골목길 조도 정비, 반사경, 출입구 보완시설, 방범창 등 환경개선 사업 등 검토

○ 다양한 돌봄영역 정책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지역사회통합케어시스템 도입과 운영방안 검토
- 유사가족 형성에 대한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검토
- 다인가구에 비해 건강상태가 낮은 수준으로 중장년의 우울 의심률과 자살 생각률이 3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 돌봄지원을 강화해야 함(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하는 개인 및 집단상담 서비스 제공)

○ 경제(일자리, 소득)정책

-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진로 발굴, 취업과 창업관련 교육기회 제공 및 일자리 확대
- 사회공헌활동을 기반으로 능력과 재능발견으로 일자리 조성

○ 생애교육 정책

- 성인을 위한 지역의 평생교육 대학(학교,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생애교육 운영
- 문화예술, 봉사, 교육, 건강관리, 취업지원, 외로움 및 고립감 극복 등이 가능할 수 있는 모임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제공(ex_덴마크 시민자유학교 모델 참조)

-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교육방식 적용
- 정서적 문제 해소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ex_지역사회상담카페)
-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시설 교류의 장 마련으로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망 활성화 도모

○ 고독사 관련 정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이와 관련한 인프라 또는 전달체계가 부족함. 5개년 계획 수립이 마련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구조임
- 고독사 접근에 있어서 50대와 60대의 특성과 욕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대별 접근 방식을 취함. 50대는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적인 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역적 인프라와 관련한 지원을 점검하고, 60대는 노인과 예비노인이 함께 있는 세대로 기존의 인프라를 점검하는 것과 예비노인세대에게 요구되는 인프라의 구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점이 필요함

○ 중장년 대상의 컨트롤타워 기관 구축

- 기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초기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기능과 역할 확장에 부족함이 있음. 따라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지니기 위해서는 서울시50+재단과 같이 주요 거점센터를 설립하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정보포털을 구축함
- 서울시에서도 포털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중·장년행복캠퍼스가 운영되는 등 생애전환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이용 대상층이 손쉽게 찾고 이용이 쉽도록 동기를 강화하고 주된 생활 활동의 내용이 삶의 반경 내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시 고려사항

- 5060세대 1인 가구 특이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발굴 추진(장애유무, 여성과 남성, 취업 및 미취업 등)
- 기존 정책과 새로 도입하는 정책의 유사성, 중복성이 없는지 검토가 요구되며, 기존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지속 및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무작정 신규 정책만을 발굴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지역별 특성 및 형평성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보면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복합형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제시 필요

○ 인천시 복지자원

- 인천지역 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상황 및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과 예산, 인력 등의 규모 고려

○ 정책 대상의 보편성과 자립의 원칙

- 5060세대 1인 가구의 다차원적인 문제는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현재의 많은 정책들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고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만큼 예방과 자립을 위한 관점을 간과하기 쉬움
- 빈곤하지 않고, 취약한 요소가 적다고 해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홀하게 된다면 개인의 부담과 해결능력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 경우 급격한 삶의 문제에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모색되어야 함

○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역량 강화

-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적 근거와 자치단체별 조례 등을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거주하고 주된 활동을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 외 사회적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비정부기관의 사업 제공과 시민의 참여하는 해결방식이 요구됨

제2절 5060세대 1인 가구 지원 정책방안

1. 5060세대 1인 가구 정책지원 기반 조성

1)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인천시의 1인 가구 정책은 비로소 2022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2023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예정으로 인천의 1인 가구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큼
- 조례에 의거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청년세대나 노인세대 1인 가구에 비해 5060세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미흡 상태로 자칫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될 우려를 지님
-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해 25개 시·도에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및 중·장년 지원 조례 또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등이 마련되어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살펴본 타 시·도 인생이모작지원 조례 및 중·장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모두 19개 시·도로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전남, 강원, 경기지역으로 나타남 (표 4-1)

〈표 4-1〉 전국 타 시·도 중·장년 인생이모작 및 생애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제·개정구분
1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3.	제정
2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1. 06. 16.	제정
3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09.	일부개정
4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10.	일부개정
5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06. 01.	제정
6	부산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2020. 11. 03.	일부개정
7	광주시 서구	광주시 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1.	제정
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2019. 06. 28.	제정
9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15.	일부개정
10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4. 11.	제정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제·개정구분
1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4. 29.	전부개정
1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5. 01.	제정
13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9. 16.	제정
14	강원도 인제군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2017. 07. 14.	제정
15	경기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8. 10.	일부개정
16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2019. 05. 16.	제정
17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31.	일부개정
18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2. 30.	제정
19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0. 12.	제정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장년의 인생이모작과 생애설계 지원 조례 외에 중·장년층의 일자리 집중하는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는 점임. 서울, 인천, 충남, 전북, 경기도 5개 지역에 중·장년 및 여성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됨(표 4-2)

〈표 4-2〉 전국 타 시·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제·개정구분
1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7.	제정
2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8. 04	일부개정
3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제정
4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1.	일부개정
5	전라북도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2020. 11. 13.	제정
6	경기도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03. 20.	일부개정
7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9. 30.	제정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5060세대 중·장년은 아직 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세대이며, 특히 1인 가구인 경우 더욱 요구되는 삶의 필수 요소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5060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재사회화되어 재도약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 욕구를 지원한다면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5060세대 1인 가구를 키워드로 볼 때, 1인 가구는 이미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5060세대인 중장년의 경우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 모두 다루기 힘든 구조로 별도의 중장년 대상 인생이모작, 생애설계,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함

2)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2022년 인천시는 1인 가구에 대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음. 즉,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임. 인천시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8.3%이고, 남성 1인 가구의 비율과 중장년의 이혼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1인 가구 정책은 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조례제정을 근거로 인천시는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인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음. 정책 세부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구성함(정혜은, 2022)

- 1단계(2022~2023): 1인 가구 지원체계 준비단계

- '인천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1인 가구 현황 및 취약 1인 가구 분포 및 특성 파악

- 2단계(2024~2026): 1인 가구 지원 기반 구축단계

- 인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추진 체계 구축
 - 인천시 1인 가구 지원 담당부서 마련
 - 인천시 10개 군·구 읍면동 담당부서 설정
- 인천시 공동사업 및 대상별 시범사업 실시, 사업 평가
 - 3단계 추진 사업 선별
 - 1인 가구 유형(청년, 중·장년, 노인)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성과평가

- 3단계(2027년 이후): 1인 가구 지원 정착 단계

- 인천시 및 군구의 1인 가구 지원 기반 공통사업과 군구 특화사업 전면 확대 시행

- 인천시와 지역 연구기관 통해 추진하는 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1인 가구의 특성이 일률적이지 않고, 전 세대가 경험한 사회적 배경이 상이한데서 나타나는 견해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으나 맞춤형 정책지원은 한계가 예상됨
-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5060 중장년 세대 1인 가구를 심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선행하고 세부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강구하는 것에 있음. 전체 「(가칭)인천시 5060세대(중장년, 신중년) 1인 가구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군·구별 인구특성 및 분포를 토대로 세부 지원 계획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생활권 내에서 심층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정책 체계가 마련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필요함

3) 정책 대상별 실태조사

- 앞서 우려되어 제안한 바와 같이 전체 1인 가구의 특성으로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각 정책 대상별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2022년 실태조사에서도 약 3천500가구의 1인 가구가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각 대상별 특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음
- 청년, 중장년, 노인세대로의 구분하기보다 더 세밀한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연령별 구분의 간극을 좁히고 실태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5060세대에서도 다른 욕구를 보일 수 있는 연령의 특수성을 예측하는 만큼 별도의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준비 실태조사가 계획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지원과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 및 복지환경 구축을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봄

4) 행정조직 전달체계 구축

- 인천시의 행정조직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부서는 여성가족국의 가족다문화과 임.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련한 시행계획과 사업 추진 및 평가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현재의 인천시 행정조직 체계 상 다양한 정책 대상층을 아울러 1인 가구 정책을 전담하는데 한계가 예상됨
- 정책 대상층과 정책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볼 때 행정조직 부서는 다음과 같이 예측됨
 - 여성층의 경우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청년층의 경우 여성가족국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담당관
 - 노년층의 경우 복지국 노인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등
 - 일자리의 경우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
 - 주택정책의 경우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개략적으로 살펴본 행정조직 중장년 정책을 전담하는 국과 부서, 팀은 조직되어있지 않음
- 이렇듯 자칫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어느 조직에서 전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정혜은(2022)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정책수행을 위해 서울과 같이 ‘인천시 1인 가구 전담 추진단’을 구성으로 하는 안과 경기도와 같이 ‘1인 가구 정책 총괄 특정 부서 신설’ 방식을 제안함. 연구결과에서 제안된 두 가지의 안이 어떤 방향으로 참고 되어 반영될지는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되는 바임
- 행정전달체계를 논할 때 그동안 서울시의 조직 구성을 많이 참고해 왔으나, 최근 변화를 보임. 개편 이전의 경우 복지정책실 내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있었으나 폐지되고, 현재 평생교육국 내 평생교육복지팀에서 중장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전의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담당했던 중장년 세대 지원 사업(50+재단)과 함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노후준비지원팀’으로 변경됨. 전반적인 업무 내용은 예를 들어, 기존의 노인정책(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음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어르신 급식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지도점검 업무

- 어르신 여가사업 지원(공모)
- 노후준비 지원 관련 업무
- 인생이모작사업팀 지원

자료 : 서울시홈페이지(<https://org.seoul.go.kr>). 조직도 일부 내용 발췌.

- 현재는 평생교육국 내 평생교육복지팀에서 중장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50+재단 및 운영, 사업 내용이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경우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부서가 있어 중·장년 대상의 사업과 기관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인천시 5060세대 중·장년층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다루고 있는 전담부서는 복지국 노인정책과로 볼 수 있음
 - 노인정책과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이하 '센터'로 함)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그러나 센터 출범 이후 정책 제공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아 당초 조례에서 명기된 '예비노인세대(50~64세 이하)'를 위한 생애설계 지원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대상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거나, 중·장년 대상의 유관 기관이 부족해 기존 노인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으로 변화됨
- 어떤 기관과 시설에서 중·장년의 사업을 다루며, 그러한 사업과 서비스를 관할하는 행정전담부서는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 광역 또는 지역노후준비센터의 지정과 운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가칭)인천시광역노후준비센터가 설치 될 경우 구체적인 업무의 중복과 전담부서 여부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또는 센터가 (가칭)인천시광역노후준비센터의 역할을 포괄하는 플랫폼의 기능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함
- 이와 같은 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행정전달체계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노인정책과 내 '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중·장년과 관련한 업무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5) 정책 실행기관 설치 및 운영 강화

-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정책 실행기관 중의 하나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이하 '센터'로 함)'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함. 앞서 논의된 행정전달체계에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센터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장 12조의2에 설치 및 운영 사항 명시되어 있음
 - 센터는 출범(2017년 12월 5일) 이후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기반해 전반적인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옴. 정책적인 환경 변화와 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요구됨

- 다면 (가칭)중·장년 지원 조례 내 사항으로 편입되어 기존 노인복지 정책 및 대상자와 중첩되지 않고, 5060세대 중·장년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완되어야 함
- 노년기 진입 이전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총괄적인 업무 추진하는 실행기관으로서 단계적으로 10개 군·구 및 주요 거점을 지정해 설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음
 - 센터가 콘트롤타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수행 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을 구비하고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의 과정이 요구됨
- 또 다른 정책 실행기관으로 제안이 가능한 (가칭)인천노후준비지원센터는 2021년 7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후 당해 연도 「노인준비지원법」이 개정되었는데 제9조의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조항이 새롭게 추가됨. 이러한 배경으로 타 시·도에서도 센터 설치에 대한 제안과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유사한 검토는 「제주 장년층 생애재설계 기본계획(2022~2025((안))」 연구에서도 언급되어 있음(공선희, 2021)
- 정책 실행기관 모두 실질적인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5060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정책을 제공하는 행정전담부서가 산재 되어 정책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인천시 「제1차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전략과제로 제시된 내용 중 2영역(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의 2-1. 고령사회 서비스 제공 강화, ① 세부 전략 ‘지역 중심의 원스톱 통합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을 참조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50플러스포털’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중장년행복캠퍼스’의 이름으로 중·장년 세대(50~64세)를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하여 교육, 취·창업, 동아리, 사회공헌, 상담 등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와 기관들을 연결하는 생애전환 플랫폼을 운영 중임



2. 5060세대 1인 가구 영역별 지원 방안

1) 네트워크 : 관계(가족, 사회)

□ 유사가족(공동체)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인천시 1인 가구 관련 조례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주목해 봄
- 본 연구에서도 5060세대 1인 가구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으로서의 사회적 가족은 매우 의미가 깊음. 가족과도 단절되고 주위의 사람들과도 유대관계가 적어 자칫 고립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서의 지지체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임
- 5060세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중심의 정책서비스 제공은 직접적인 도움과 지지가 가능하기 위해 대상자의 생활범위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공적 지원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지원체계로써 이웃과 민간단체 및 기관들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맺기 및 친교 프로젝트를 지역사회 단위로 추진해 봄
 -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유사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전환하고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교육 콘텐츠와 매뉴얼 개발과정 또한 추진되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2) 건강 및 일상생활

□ 정신건강 상담 강화

- 정혜원(2022)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시 1인 가구는 전국과 비교해 중·장년, 남성, 이혼 비율이 높아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를 언급한 것과 심층면접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사한 현상을 보임
- 인생의 후반부에 사회경제적으로 퇴직과 은퇴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영역에 미치는 파장이 큼. 대인관계, 건강, 주거(택)의 변화, 삶의 질과 연동되는 여가와 취미 등 어느 하나 무관하게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적 결함을 지님
- 일반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하기보다 감추고, 방치하고, 참아 내려는 경향이 높아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쉬움
 -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알코올중독, 우울증, 불안감의 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가족센터 등 전담팀을 구성하여 잠재적으로 위기가 진단된 경우 또는 위기1인 가구를 발굴하여 상담을 지원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현재 1인 가구인 경우 노년층의 1인 가구로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 향후 고독사가 우려되는 대상이 됨. 따라서 보다 앞선 시점부터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으로 사례관리가 요구됨

□ 사회적돌봄시스템 강화

-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5060세대 1인 가구를 발견하고 촘촘한 지원 사업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특히 고독사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과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여 5060세대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점검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확대 방안 논의가 요구됨

- 새로운 신규 사업과 정책을 통해 5060세대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적용하는 방식을 참고해 볼 수 있음. 다만 이 부분을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제공할 것인지, 또는 신규 중장년 정책으로 별도 제공될지의 판단은 정부 및 지자체단체의 속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위기로 치닫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는 입장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5060세대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서비스 지원 대상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

□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 기본적으로 1인 가구에게 요구되는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것과 5060세대 1인 가구로서 요구되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정책이 맞닿아 있음
- 대체로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과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상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을 지닌 채 생활함. 주변인들과 차단이 쉬운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상가), 다세대 주거지, 고시원, 숙박시설, 원룸 등 소외되고, 주위의 무관심이 쉽게 이루어지는 곳일수록 안전도가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많음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1인 가구 전체와 5060세대 1인 가구 모두 주민참여예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일부 예산을 반영해 어두운 골목길의 조도 정비, CCTV확충(출입구, 주차장), 비상벨 및 반사경 설치 등으로 시각적인 안심과 보호가 확인되는 안전망 시설 설비가 필요함
 - 또한, 소형임대주택 내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설치 시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세제감면 혜택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비용 지원 등을 적극 유도함
 - 거주자에게는 안심물품(스마트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창문장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을 배부하거나 보안업체와 협약하여 도어카메라,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결합하여 일반 가정용 보안서비스 등을 지원함. 지역 내 수요에 기반 하는 안심물품 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위와 같이 1인 가구와 5060세대 1인 가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의 세부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5060세대 1인 가구에게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은 열악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저소득 취약계층의 5060세대 1인 가구 중 건축 연한이 오래되고, 주거지 내 안전사고가 예측되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하는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만 대상층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제안함
- 최근 안심폰이나, AI시스템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치되고 있는데, 이 또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5060세대 1인 가구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거의 유형을 다양화는 방식으로 공유주택, 세어하우스 등 함께 어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거나,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가칭)보금자리 주거 지원’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할 수도 있음

3) 여가 및 취미생활

□ 참여자 및 제공자간 수요조사

- 5060세대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기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콘텐츠,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계의 필요성,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안, 이 세대가 생각하는 여가와 취미생활의 의미 등 기본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이 요구됨
-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제시하고 있어 특화된 형태의 활동을 찾기 힘들. 통계적인 수요조사 외에 심층적인 참여자의 모니터링 조사로 여유가 없고, 단단해진 삶의 틈새를 창의적인 여가와 취미활동으로 심리적 안정과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덜 힘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 필요함
- 또한 구체적인 여가와 취미생활을 제공하는 수행 기관의 경우도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특화된 5060세대 1인 가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수요조사가 필요함

□ 교육제공 관점의 방향성 분리 제공

- 5060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오랜 시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해 왔고, 노년기 준비를 위해 아직 활동이 요구되는 세대임.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일자리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음. 단 건강상태가 양호할 경우가 더욱 그러함.
- 이와 같은 특성에 기인해 5060세대 1인 가구는 삶의 여력이 부족해 여가나 취미를 즐기기 힘들어 하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심층면접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남
- 따라서 저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한 여가나 취미 활동을 스스로 찾거나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취향에 맞는 교육을 수강하여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연계가 단절되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이됨
- 여가와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관점이 하나는 즐거움과 문화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순수 여가 및 취미활동 서비스 제공과 다른 하나는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여력과 사회참여를 원하는 경우 전문적인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5060세대 공간 조성

- 5060세대 1인 가구는 집을 나서면 갈 곳이 없음. 긴 하루의 시간을 공원, 등산, 산책, 공공도서관, 카페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소일거리를 하는 등 활동반경이 작아진 환경 속에서 대인관계나 여가 및 취미를 즐길 만한 모임 공간이 부족함
- 연령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노인이 아닌 집단과 노인인 집단으로 나뉘지는데, 이미 법적 노인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기존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만 아직 노인으로 편입되지 않은 연령대의 경우 적절히 문화적인 활동을 하거나 여가를 보낼 공간이 없음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도 교육과정 이후 소모임 동아리 활동이 있으나 이는 교육 수료자 등에 한하거나, 별도의 신청 자격을 부여 받고 활동하는 것이라 열린 모임은 아님
-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내 공간이 마련되어 5060세대 누구나 이용가능한 모임 공간이 제공된다면 1인 가구 역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마치고, 청장년 정책으로 만들어진 ‘청년마루센터(구, 유유기지)’와 같은 공간을 5060세대에 계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가칭)인천5060복지관 5060복합문화센터, 5060놀이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여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정보를 제공받으며,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곳으로 공간이 요구됨
- 학습, 문학, 예술, 창업 등 다양한 주제와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의미 있는 여가와 취미를 찾고 삶을 풍요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임
- 기존의 평생교육과 같은 방식의 여가교육, 취미교육도 물론 중요함. 이는 기존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곳을 통해 전문적인 배움이 가능하지만, 다른 의미로서의 여가와 취미를 개발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장을 마련할 때 성취감을 높게 인식할 수 있어 삶의 활력을 지닐 수 있게 됨

4) 재무 및 소득활동

□ 5060세대 1인 가구 특화 노후준비컨설팅 제공

- 노후준비서비스 추진체계의 하나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실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영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들이 있음. 처음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5060세대의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서비스 내용의 검토가 요구됨
- 5060세대 중장년에게 필요한 노후준비 컨설팅이더라도 1인 가구의 조건이 추가 된다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노후준비컨설팅을 보다 특화하여 5060세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컨설팅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노후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더라도 5060세대 다인가구와 1인 가구가 체감하고 겪는 어려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경미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 특성에 맞는 컨설팅의 제공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매뉴얼을 구비하여 세심히 접근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함

- 향후 5060세대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노후준비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매뉴얼 개발과 배포가 실행기관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재무가 취약한 1인 가구의 경우 부채 탕감 계획, 노후대비 자금 확보 계획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제공되어야 함

□ 대상자 특성 중심의 직업훈련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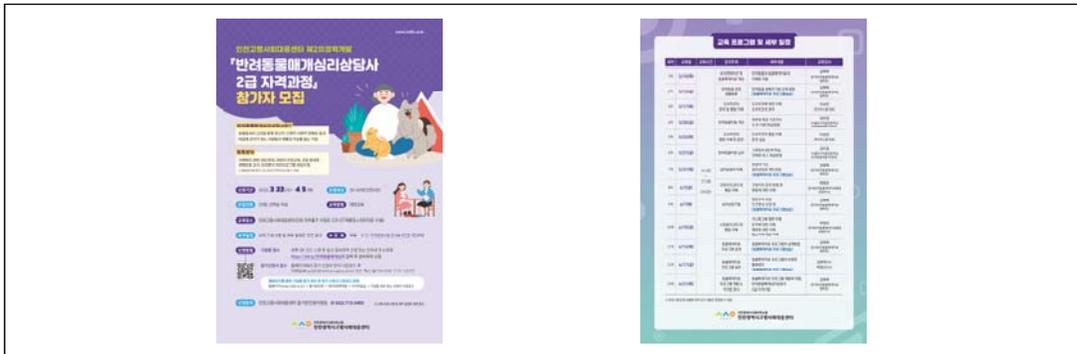
- 일자리 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로 방향이 변화됨
 - 현 시점의 일자리 정책 체계는 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및 고용청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인자위'), 그리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수행기관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별 인자위는 전국 광역 시도 17개 지역에 사무국 형태로 지역 경제단체(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일자리 재단 등)에 설치되어 있음
 - 지역과 산업 내 전문기관 역할을 하는 인자위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외에도 일자리 창출의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고용거버넌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체계와 더불어 관련 산업 내에서 속해 있는 5060세대 중장년층은 개개인의 역량 및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노년기 삶의 상황이 천차만별로 나뉘게 될 것임.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고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노년기 빈곤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됨
 - 따라서 5060세대 중장년층의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지역고용거버넌스에서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자리 고용 정책은 정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많지만, 직접적으로 대상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실무의 기능은 일선 일자리 기관에서 전담하게 되는 사례가 더 많음
- 또한 본 연구의 대상층은 실제 일자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로서 근로 및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직무 숙련도에 맞는 이직과

전직 고용서비스, 심리 상담을 포함한 사회 재진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복지정책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직업훈련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선 현장에 매칭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의 직업훈련 과정이 요구됨
- 일자리 사업 설계를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면, 고용서비스(이·전직)와 직업훈련(직무 분야 반영)과 인프라 지원(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복지부, 산업자원부 등)를 패키지화된 정책 기획으로 지원이 필요함

• 사례 1 : 최근 반려동물의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ex_펫시터)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민간자격증 취득으로 양성된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자료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홈페이지(<http://inlife.or.kr>).

• 사례 2 : 중·장년 세대의 살아온 삶 속에 아카이빙 하거나 잠재되어 있는 예술적 능력을 개발하여 이모티콘 작가로서의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 사례 3 :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야의 데이터 정량화 단계가 직무난이도가 낮으나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중·장년 인력을 빅데이터 정량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훈련과 교육기회 제공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청운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와 공동으로 고령친화산업 디지털 전환 창업과정 교육 실시



자료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홈페이지(<http://inlife.or.kr>).

- 재무설계 방식과 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서의 교육이 요구됨. 물론 정보만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고, 어떠한 장단점과 사회적 위험을 분석해 내는 시각을 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교육과정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재무에만 치중되다 보면 자칫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감 또는 자산형성이 부족한 경우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준비하는 방안과 더불어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의 방식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의 논의도 요구됨

5) 사회공헌(자원봉사)

□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계획 수립

-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 각 세대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내용 또한 다른 양상을 보임. 예전과 같은 자원봉사 교육만으로는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쉽지 않음
- 전반적인 자원봉사 인식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장 첫 단계로 삼고 이후 축적된 경험치에 맞춰 타지역, 새로운 영역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과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 개념을 연계함. 5060세대는 그동안 주된 삶의 범주가 거주지가 아닌 사회적 지역 관계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문제에 바로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음. 그러므로 자원

봉사센터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함

- 기존의 교육 체계와 내용 정비를 위한 검토와 새로운 매뉴얼 및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의 교육매뉴얼 업데이트와 개편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향후 인천시자원봉사센터는 5060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실천학교’ 형태의 교육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잠재력을 지닌 5060세대의 재능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역 단위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 1인 가구가 지닌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관점을 지님

□ 제2의 직업으로 전환 가능한 활동 개발

- 자원봉사활동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5060세대는 개인적인 재능과 삶의 경험을 축적해온 세대로 더할 나위 없이 자원봉사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자원봉사의 개념을 무보수의 개인적 헌신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됨
- 최근 들어 자원봉사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어 비대면 활동과 재능기부로 사회적 기여 형태의 활동이 가능해짐. 5060세대는 노년기를 준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우선시 되면서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에 일부 거부감을 지니고 있기도 함
- 따라서 5060세대 1인 가구의 경우 관심 있는 활동을 지속할 때 경험이 축적되고, 기능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자원봉사활동 이후 직업화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이 요구됨
- 한편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50~69세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인천시 5060세대 1인 가구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자문의견 시 제시됨. 단, 상기 사업은 경력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참여자만 가능하데, 5060세대 1인 가구 중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일부 전문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는 기존 일반 자원봉사로 연계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처함

- 재능과 전문성을 가진 그룹은 심화되고 확장하는 형태로 일자리에 재진입하는 과정의 하나로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을 고려하고, 다른 한 측면은 경험과 재능,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새롭게 직업훈련을 계획하는 재교육과정으로 연계하는 등 스스로의 문제해결 방식보다 지원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장이 요구됨

□ 적극적 홍보방안 수립

- 주제가 '자원봉사' 일 경우 대부분 전 연령대 모두 접근이 용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생들의 경우 학업과 성적관리 측면에서 의무적인 또는 부수적으로 추가하게 되는 활동 정도로 인식되기도 하고, 5060대 중장년층의 경우 사회적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직장 및 기업차원에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세대 중의 하나로 손꼽힘
 - 인천자원봉사센터(2021년 기준)의 현황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 인구 2,948,375명 중 자원봉사 등록 인구는 717,037명으로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남성은 282,638명(39.4%), 여성은 434,399명(60.6%)를 차지했고, 5060세대 등록률은 170,105명(23.7%)로 20대에 이어 높은 등록률을 보임
 - 참여자의 직업을 보면, 초·중·고·대학생과 주부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고, 활동분야는 주로 생활편의, 환경보호에 집중되어 있음. 또 참여하는 시간으로 보면 생활편의, 안전 및 방법 분야에서의 참여율이 높게 보고됨
- 위와 같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5060세대의 자원봉사 등록율과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음. 그러나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해 볼 때 부족함이 많음
- 5060세대는 퇴직, 은퇴 등을 경험하는 본인과 가족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큼.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반향을 가져옴,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고립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일례가 많고, 대체로 근무지와 업무와 관련한 생활중심을 이어오다 갑자기 소속감이 크지 않았고 무관심했거나,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던 거주지로 생활패턴을 옮겨오게 되면서 많은 이질감을 경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관심과 재능을 투입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태도가 중요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이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가치와 동기를 조금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이 필요함. 5060세대 1인 가구의 경우 주된 거주지로 판단되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상가), 고시원, 다세대 주택, 기업(관)에 온·오프라인 홍보가 필요함. 각 세대 우편함과 게시대를 활용하는 홍보는 전통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여전히 살펴보는 수요자가 있으므로 지면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안내 및 활동 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SNS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증 발생으로 부정적이긴 하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익숙해진 고립형의 사람들에게 온라인의 접근 홍보는 또 다른 바깥 세상과의 연결 및 현장으로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기존에 활용했던, 또는 찾아오는 방식으로 참가자를 기다린다면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5060세대의 경험과 재능이 사장될 수도 있음. 향후 인천자원봉사센터는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에 참여자와 1인 가구 노후계획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로 함께 하는 가치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이 요구됨

제3절 연구 합의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합의

-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개인의 생활양식마저도 큰 변화가 나타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 역시 사회적인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 인식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책대상의 범주안에 편입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있음
- 이에, 인천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또한 계획을 수립함
- 이러한 사회적, 지역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5060세대는 그간 1인 가구에서 주목된 청년가구에 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특히, 5060세대는 50~64세의 경우 노년기 진입에 근접한 그룹이고, 65세 이상은 노년기를 겪고 있는 그룹으로 단일하고 통일된 특성으로 욕구를 규명하기 힘든 특징들이 내포되어 있기도 함
 - 빠르게는 40대부터 조직으로부터 감지되는 조기퇴직과 은퇴상황, 개인 신변상의 문제와 조직의 변화로 인한 이직과 전직, 부족한 경험과 준비로 이어지기 쉬운 자영업과 창업 등 순조롭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 차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 물론 취약하게 보이는 그룹에 비해 삶의 형태가 풍요롭고,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여력이 가능한 그룹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5060세대 내에서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남
 - 따라서 두 개의 그룹 모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지원 가능한 정책의 관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5060세대 1인 가구가 노년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덜 힘든 상황을 만들어 빈곤하거나, 극심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둬
- 늘어나는 복지 수요의 부담을 최대한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5060세대가 아니더라도 전 세대에 걸쳐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노인 이전의 세대로, 1인 가구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

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현황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기초 연구로 첫 시작을 이룬데 의미가 있음

2. 향후 연구과제

- 2022년 인천시 1인 가구 실태조사 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추후 관련 연구와 보도자료에 대한 배포가 예측됨. 전 연령층의 1인 가구가 조사되었으나, 세부적인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요구됨
- 본 연구 이후 정량조사를 통해 5060세대 1인 가구의 노후준비 생활상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5060세대 뿐만 아니라 세대별 조사 계획 수립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원 내용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3년에 진행될 1인 가구 기본계획에 노후준비와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심도 있게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예측되므로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하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요구됨

[참고문헌]

■ 학술논문

- 강보민(2020). 중년 1인 가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나·김혜진·김영선(2017). 도시지역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보건사회연구, 184-215.
- 강은나·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 47-56.
- 김순정(2019). 1인 가구주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화(2020). 1인 가구 중년 비혼여성의 관계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혜영(2021). 중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노후준비. 한국가족복지학, 26(1), 61-79.
- 원시연(2020).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745호.
- 윤강인·강인선 (2016). 중·고령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 센(Sen)의 역량접근이론을 통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36(2), 457-4730.
- 이하나·조영태(2019). 중년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 보건사회연구, 39(3), 380-407.
- 이한나(2020).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88, 21-35.
- 임유진·박미현(2018). 1인 가구 중년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4(1), 187-206.
- 임정미(2020).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87권.
- 최성현(2020). 도시 거주 노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유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244-282.
- 홍성표·임한려(2022). 중·고령자 1인 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 : 중·고령자 다인가구와 비교 분석. 보건사회연구, 42(2), 9-30.
- 홍승희·김지명(2021). 연령대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식생활 행태 및 건강한 식생활 역량과의 관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6(5), 337-349.

■ 단행본

- 공선희·김재희·천영서·김문규(2021). 제주 장년층 생애재설계 기본계획(2022~2025)수립 연구.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 국민연금공단(2021). 노후준비상담프로그램.
- 송민혜(2021). 50+세대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방향.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리포트. vol.26.

송민혜·경정아·박선영(2020).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 분석.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안기덕(2021). 커뮤니티케어와 50+세대야하는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리포트. vol.26
이서연(2019). 중장년 세대의 사회공헌활동 특성과 지원방안 :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영광(2021). 중장년의 일의 의미 유형과 삶의 질의 관계.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정혜은(2022). 인천시 1인 가구 특성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 사이트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1인 가구 지원 사업.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https://happycam5060.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서울시50플러스포털(<https://50plus.or.kr/50plus.do>).
서울시홈페이지(<https://org.seoul.go.kr>).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홈페이지(<http://inlife.or.kr>).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intro/intro01.do>).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기타

건강가정기본법.
국민연금공단(2020.7). 노후준비실 제출자료.
노후준비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노후준비지원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020.12.3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2022. 2).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5.30.).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 :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광역시 각 군·구별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2022). 2022년 인천광역시 주요업무 계획.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2021년 현황).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시니어연구 2022-05

5060세대 1인 가구 노후계획 탐색과 지원방안

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발행인 || 황흥구

발행처 ||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편집인 ||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 권미애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0층(제물포스마트타운)

전화 || (032)715-5491 팩스 || (032)715-5319

홈페이지 || <https://www.inwf.kr/>

인쇄 || DESIGN편집(032-710-6480)

ISBN 979-11-92210-32-2 : 비매품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으며,
본 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9 791192 210322
ISBN 979-11-92210-32-2